

꿈을 키우고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 행복한 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국·영·수 위주의 암기식 수업은 NO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학생 중심 수업과
스스로 탐구하고 함께 학습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 UP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잠재력을 키우는 예·체능 교육,
희망을 반영한 선택 프로그램에
마음껏 참여하여 꿈과 끼를 키워보자

토론하고 소통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방식으로! **01**

02 관심과 흥미에 따라
마음껏 참여하자



소질과 적성을 알면
진로가 보인다! **03**

다양한 진로 활동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사회 체험 활동을 통해
공동체와 직업세계를 이해해보자

04 공부하는 동기를 찾고,
함께 성장하자!

시험을 위한 공부에서 벗어나
학습동기를 찾아 스스로 학업에 매진하고
경쟁과 성취 중심에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자!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부 정책이야기

행복한 교육

‘기적’을 연주하는 문화예술교육
학교행사도 개.성.시.대.

한가위에 반달 모양 떡을 먹는 이유
청소년들의 적성·흥미 찾아주려면...



Contents

9 September 2013 | Vol. 374



서울 청덕초등학교(교장 양영수) 뮤지컬반 학생들이 방과후에 모여 공연 연습을 하고 있다. 뿔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아이들은 대사 한줄 동작 하나라도 놓칠 새라 눈빛이 반짝인다.

기획 I '기적'을 연주하는 문화예술교육

- 04 창의성의 문을 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 06 학생뮤지컬 · 학생오케스트라
- 10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
- 14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세계적 흐름
- 18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 22 예술중점학교_사교육 부담 없이 예술적 재능 키운다

기획 II 학교행사도 개.성.시.대.

- 48 연습 없는 운동회, 구경꾼 없는 운동회
- 51 운동장 '블록' 안에서 학급응집력 키운다
- 52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독서활동' 주목!
- 55 학부모설명회, 소통을 위한 또 하나의 장
- 58 새로운 발상이 창의적인 학교문화 만든다

26 삶과 교육 노봉곤 대전샘머리초등학교 교장

30 꿈이 영그는 현장 경기 평택 청북중학교

34 이런 수업 어때요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 서머스쿨'

38 역사의 책갈피 보름달 뜬 한가위에 반달 모양 떡을 먹는 이유

40 사람향기 광주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인길 원감선생님

41 氣 살리는 생활지도 “작은 일에도 항상 대가를 원해요”

42 생활 속 교육심리 대가에 따라 행동이 변하는 현상, 크레스피 효과

44 서남수 장관의 행복한 교육이야기

46 정책카툰 학부모 개인정보보호 강화

62 함께 여는 행복교육 국사편찬위원회

65 진로나침반 청소년들의 적성 · 흥미 찾아주려면...

68 직업, 직업인 김유리 하우스매니저

70 세계 속의 한국교육 브라질한국학교

74 학교 · 학급경영노트 교장실 절반으로 줄여 소통공간 마련

78 학교 밖 학교 학교폭력 치유기관 '해맑음센터'

80 일상의 씬표 바람과 시간이 빛은 모래 언덕, 신두리 사구

84 책 속의 블로그

86 뉴스브리핑

88 독자게시판



26



30



34



71



80

● 발행일 2013년 9월 1일 ● 발행처 교육부
● 발행인 서남수 ● 편집인 김문희 ● 기획총괄 이강복 · 유상범
● 교육부 대변인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709호 TEL (02)2100-6579 FAX (02)2100-6585
● 행복한 교육 편집실 TEL (02)2271-0992, 0994(제보, 배송)

• 본지에 수록된 기사 · 사진 ·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투고를 기다립니다(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연주하는 문화예술교육

- 창의성의 문을 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 학생뮤지컬·학생오케스트라
-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
-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세계적 흐름
-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 예술중점학교_사교육 부담 없이 예술적 재능 키운다

미술이나 음악, 무용, 연극 같은 예술 활동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것은 공격성을 줄여준다는 것. 예술을 감상하고, 직접 참여해 즐기는 것은 두뇌에 '감정 이입'과 '표현 욕구', 특히 '환상' 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활발해진 우뇌적 활동은 균형 잡힌 사고와 통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학교 현장에 문화예술교육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정서와 행동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탄광촌 작은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선율이 울려 퍼지고, 방향하던 아이들이 뮤지컬을 연습하며 땀방울을 쏟아낸다.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같은 힘, 이것이 문화예술교육의 힘이다.



창의성의 문을 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글 | 김선아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과 교수



01

01.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이 창의적인 능력을 발달시키고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사진은 예술중점학교인 송곡여자고등학교 활동 모습

미래 사회는 정보기반 사회에서 창조기반 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 활용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사회적 생존과 성공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시대가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협력하여 혁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 사회로 향하는 학교 교육이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 융합 현상 등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학교 교육은 아직도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고정적인 지식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좌뇌형 지식근로자'를 양성하는 체제에 있다고 한 다니엘 핑크의 진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주장하는 미래 하이콘셉트의 시대에는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합을 추구하는, 즉 통합적 사고를 통하여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이제까지 가르쳐온 순차적, 언어적, 기능적, 분석적 사고에 상상력과 감성, 창의성과 의미를 더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시대 도래

학습의 자율성과 즐거움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예술 활동은 자기 인식과 표현인 동시에 타인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수용하는 감정이입과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토대

문화예술교육은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수용하는 감정이입과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토대가 된다. 감성적 전달과 수용에 기초한 예술적 체험은 사람들 사이에 창조적 에너지와 즐거움을 창출하고 전염시키는 특성이 있다. 즉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이다.

가 된다. 통제와 관리에 익숙해진 학교에서 배움 가운데 학생들이 서로 감성적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만남의 기회는 최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성적 전달과 수용에 기초한 예술적 체험은 사람들 사이에 창조적 에너지와 즐거움을 창출하고 전염시키는 특성이 있다. 즉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이 단순한 체험활동 더하기를 넘어서 학교와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창의적인 사람 혹은 재능은 타고난다.'는 상식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신은 창의적인가?'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내젓는다. 이는 창의성은 특별한 누구인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하지만 잘 알려진 다중지능이론에서는 시각적, 음악적, 신체적 능력 또한 지능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지능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듯이, 재능 또한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어떤 지능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예술적 잠재성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

더 나아가 창의성의 요소인 생산성, 독창성, 내적 동기, 능동성 등은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이에 따라 창의적 성취의 특징도 달라진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남들과 다른 독창성 못지않게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학생들의 잠재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즉 모든 학생들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생애에 걸쳐 창

의적인 능력을 발달시키고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함께 생각해 볼 두 번째 질문은 '모차르트가 미술을 전공했어도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이다. 혹은 피카소가 수학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면, 여전히 창의성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억되었을까? 이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기초한다면 창의적인 성취는 영역 특수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창의적인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라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전적 능력, 개인적 성향, 교육적·환경적 조건에 부합하는 영역에서 창의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

창의성의 체계 모델을 제안한 칙센트미하이이는 창의성을 개인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신과정으로 국한하지 않고, 영역(domain), 장(field), 그리고 개인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산출물로 설명하였다. 체계 모델의 관점에서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이 어디에 있는지 탐색하는 가운데 자신이 앞으로 추구할 영역(domain)을 발견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초의 장(field)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 미술, 체육 분야에서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초·중등 교육과정 안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언어적 능력이나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창의적인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 환경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끼를 발산하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 몰입하며,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행복 교육의 한 가지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함께, 모든 학생들이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로 변화하기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과 관심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제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는 행복한 공간으로 학교가 변혁하기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을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내딛어야 할 때이다. ②



학생뮤지컬·학생오케스트라

탄광촌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준 뮤지컬 아이들을 하나로 만드는 예술의 힘

글 | 이혜민 객원기자

올해 처음으로 '학생뮤지컬' 사업이 시작됐다. 전국 130교에서 운영하는 학생뮤지컬은 음악, 무용, 연기, 춤, 극본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상호 소통과 이해, 협동심 등을 길러주고 있다. 특히나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도 2011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금은 초·중·고 400교에서 예술적 능력과 인성을 기르는데 앞장서고 있다. 학생오케스트라·학생뮤지컬 운영학교를 소개한다.



01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PC방에 몰려가 놀 때가 많았다. 그러다 친구들의 제안으로 뮤지컬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뒤로는 그 시간에 뮤지컬을 연습한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30여 명이 모이는데 그때마다 기분이 좋다. 그 전에는 뮤지컬에 대해 호감이 있었지만 이런 수업을 들어보지 못했다.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며 협동심을 기를 수 있어 좋다.” 강원 삼척시 도계고등학교 2학년 정현중(18) 군은 방학 때 학교에 나와 뮤지컬을 연습할 정도로 열심이다. 장래희망이 뮤지컬 배우라는 같은 학교 1학년 유상민

(17) 군 또한 마을 인근에서 접할 수조차 없던 뮤지컬 수업을 학교에서 들으며 꿈을 키우고 있다. 유 군은 “그전에는 뮤지컬을 DVD로 봤지만 이제는 연기하고 안무하며 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탄광촌 아이들의 성장기 뮤지컬로 공연

뮤지컬 동아리를 이끄는 노은영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가 돈독해졌다.”며 만족해했다. “우리 학교에는 집안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많은데 그 어려움을 교사에게 시시콜콜

“학생뮤지컬사업은 공교육만으로는 예술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은 뮤지컬이라는 공동 작업을 하면서 협동심을 기르고, 공연을 무대에 올려 관객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자신감도 키우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을 것이다.”

01. 02. 도계고는 탄광촌 아이들의 성장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을 만들고, 2009년부터 뮤지컬 동아리에서 발표회를 열고 있다.

털어놓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이들과 음악을 통해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정을 알게 돼, 지도할 수 있게 됐다. 방황하던 아이들이 열의 있게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희망이 전해진다.” 탄광촌에 위치한 이 학교는 2008년 전인국 전 교장이 탄광촌 아이들의 성장기를 다룬 창작뮤지컬 ‘펜치와 철조망’을 만들고, 2009년부터 뮤지컬 동아리에서 발표회를 열고 있다. 매년 같은 연극을 무대에 올리지만 참여 학생들이 달라서 성과도 해마다 다르다. 하지만 올해 들어 뮤지컬 동아리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교육부가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려고 학생뮤지컬 운영학교를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30개교 등 130개교를 선정해 2013년부터 3년 동안 매년 3,00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도계고등학교는 뮤지컬 연습실을 정비하고, 뮤지컬 전담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130개교 학생뮤지컬 운영... 협동심·자신감 키워

학생뮤지컬 운영학교로 선정된 뒤 뮤지컬 동아리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곳도 있다. 서울 청덕초등학교는 2009년부터 시작한 뮤지컬 동아리를 한국어 뮤지컬 동아리, 영어 뮤지컬 동아리, 연극 놀이 동아리, 퍼포먼스 뮤지컬 동아리로 확대했다. 이 학교는 아이들이 뮤지컬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뮤지컬 캠프를 운영하는 한편, 고전 ‘오즈의 마법사’를 학교폭력 주제로 각색해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다. 청덕초등학교의 뮤지컬 동아리를 총괄하는 노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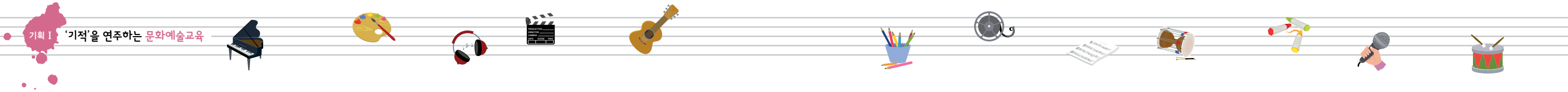
02

림 교사는 “가정형편 때문에 문화 향유뿐 아니라 음악을 배울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뮤지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했다. 특히 이 학교는 서경대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뮤지컬학과 학생들에게 교육 기부도 받고 있다.

광주 유덕중학교는 학생뮤지컬 운영학교로 선정되면서 뮤지컬 자체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학생 40여명과 교사 5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5·18로 인한 가족들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뮤지컬을 준비해 9월 말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학생뮤지컬 사업을 전담하는 학생뮤지컬사업단은 뮤지컬교육 기자재, 지도교사 연수, 현장 전문가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뮤지컬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다. 단장을 맡은 김종현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뮤지컬 ‘달고나’, ‘내 마음의 풍금’, ‘뮤직 인 마이 하트’ 프로듀서를 지낸 현장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적극 발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공교육만으로는 예술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은 뮤지컬이라는 공동 작업을 하면서 협동심을 기르고, 공연을 무대에 올려 관객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자신감도 키우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을 것이다. 미국 교육계 관계자들은 예술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미국 정부와 달리 한국 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에 놀라워한다. 우리나라가 예술교육의 선진국이 되도록 학생뮤지컬 사업을 의미 있게 이끌겠다.”



소외계층 아이들의 희망이 된 학생오케스트라

“내 스스로가 학창시절에 관악부 활동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중학교 때 교사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악기도 학교에서 빌리고, 레슨도 관악부 선생님에게 받아가면서 대학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할 수 있었다. 나처럼 음악을 좋아하지만 돈이 없어서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광주 수피아중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지도하는 박순애 음악교사는 자신이 오케스트라 동아리 사업을 맡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여겼다. 그가 201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에 지원한 것도 그래서다. 덕분에 수피아중학교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학교로 선정돼 2011년 창단지원금 8,000만 원, 2012년과 2013년 운영비 2,0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공교육 내 예술교육의 기회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이 사업은 2011년 65개교, 2012년도 상반기 235개교, 2013년도 상반기 100개교가 선정돼 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단장 서울대 음대 김영률 교수)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각 학교는 첫째에는 악기를 구비하고, 여러 악기를 다루는 전담교사를 고용해 시동을 걸었고, 현재는 운영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 분야도 다양해졌다. 표준, 현악, 윈드, 국악 등의 분야로 학생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다.

음악가 '꿈' 키우는 기회가 되다

수피아중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는 올해 신입 단원을 모집하는데 학생들이 대거 응모할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물론 시작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하기 전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화 '기적의 오케스트라-엘시스테마'를 상영했다. 베네수엘라에서 궁핍하고 위험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꿈을 키우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예술의식이 높지 않은 부



모들은 자녀의 음악 교육에 회의적이었고, 호기심에 입단한 아이들은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했다.

다행히 현재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는 단원의 절반이 저소득층 학생이다. 이는 담당 교사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개별 면담하고, 도레미부터 차근차근 가르친 결과다. 그 덕에 수피아중학교 2학년 김태희(15) 양처럼 꿈을 찾은 학생도 나타났다.

“중학교에 입학한 뒤 호기심에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트럼펫을 배우는 재미에 흠뻑 빠졌고 실력이 늘어 선생님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음악을 공부하기에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하지만 ‘끈기 있는 자세로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꿈은 이뤄진다’는 어머니 말씀에 용기를 내 멋진 트럼펫 연주자가 되려고 한다.”

오케스트라로 폐교 위기 극복하다

한편, 학교 자체가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꾸려가면서 활력을 되찾은 경우도 있다. 충남 가사초등학교는 전교생이 40명이 채 되지 않아 폐교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노력으로 농어촌전원학교로 선정되는 한편,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로 선발돼 변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현재는 전교생이 111명에 달한다. 가사초등학교 김동렬 교사는 “학교에서 차를 타고 멀리 나가도 음악교육을 받을 수 없었는데 학교에서 질 좋은 교육을 시켜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면서 “그 덕에 학교 주변에만 해도 15가구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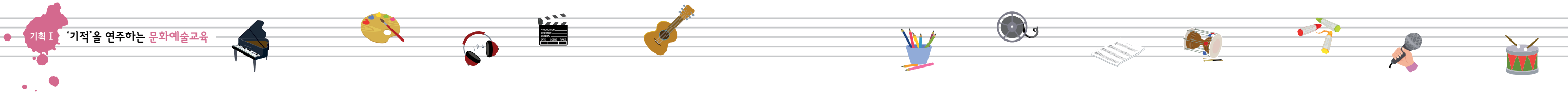
이 학교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참여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1, 2학년생은 방과 후 활동 시간에 바이올린을 배우고,



03. 가사초는 3~6학년이 되면 전원이 모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한다.
04. 수피아중은 오케스트라 신입 단원을 모집하는데 학생들이 대거 몰릴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3~6학년이 되면 전원이 모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한다. 학생들은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클라리넷 등 전담 강사들에게 교육을 받으며 악기에 따라 수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비 전액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에 선정된 학교들은 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교육부의 운영비 지원이 3년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박순애 수피아중학교 교사는 “부정적이던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사는데, 지원비가 끊겨 전담 교사의 인건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동아리를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 정책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②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

지역별 특성 살리며 문화예술교육 실천

글 | 한주희 본지 기자

교육부는 2013년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 18청을 지정하고 문화예술교육이 각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치구와 협력 모델인 '마스터클래스', 전통문화 예술교육 등 이색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는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을 소개한다.



01

지난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산중학교에는 인근 5개 교(연서중, 예일여중, 대성중, 동도중, 동명여중) 무용 동아리가 모두 모였다.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무용동아리 마스터클래스' 때문이다.

성산중 '팝댄스반', '재즈댄스반'을 포함 총7개 동아리는 이날 무대 위에서 약 15분씩 공연을 펼친 뒤 무용 전문가(마스터)들로부터 세심한 지도를 받았다. 전체적인 무대 매너, 안무 평가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기에 학생들은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 7월에는 진관중학교에서 '밴드 부문 마스터클래스'가 열렸는데, 밴드그룹 페인터스의 기타, 베이스, 드럼 연주자가 직접 악기별 지도를 맡았다. 황영희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는 "마스터클래스는 우수강사를 위촉해 공교육 내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크다. 거점학교를 통해 인근 학교 학생들까지 지도받으면서 효과는 더욱 커졌

다."고 말한다.

예술인 재능기부로 '마스터클래스' 운영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서부 관내 자치구청인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청과 '학생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협력사업인 마스터클래스 과정을 시작했다. 각 구별 3개 학교를 거점학교로 선정, 연 1~2회 밴드·무용·관현악동아리 마스터클래스를 운영 중이다. 진행에 필요한 예산은 각 구청에서 전액 지원한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청춘합창단, W콰이어 등 음악적 분야 재능기부자 214명을 발굴, 지난해 9월 교육기부 위촉식 및 교육기부 콘서트 '기분 좋은 날'을 성대하게 열어 마스터클래스의 시작을 알렸다. 마스터클래스에서 갖고 닦은 실력은 매년 10월 열리는 서부 '행복나눔' 예술제에 선보이게 된다. 학교 동아리 공연 발표회를 지역축제화한 서부 '행복나눔' 예술제는 본 공연 외에도 수색역 광장, 마포청소년수련관 등 관내 도처에서 야외공연으로 열린다. 황영희 장학사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 발표의 장을 마련했다. 농협중앙회(NH아트홀), 마포문화재단(마포아트센터) 등과 MOU 체결에 적극 나섰다."며 문화예술교육은 지자체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 전통예술활동 학교 운영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주력한다. 대표적인 특색사업이 전통예술활동 학교이다. 관내 21개 교(학교당 100~500만 원 지원)를 지정, 사물놀이단·농악단·국악취타대·북춤 등을 운영해 전통문화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나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 제2호인 날피북춤은 관내 3개 교에서 운영하며 지역문화재 보호에 나섰다.

초등 국악관현악단도 빼놓을 수 없다.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4개 교를 지정, 어릴 때부터 국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매년 '대구서부국악제'를 연합으로 열어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이며 국악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영철 대구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전통문화 계승교육이 이 정도로 활발한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드물다. 아이들이 접하는 음악은 대부분 서양음

악인데, 국악을 경험하면서 전통문화에 자긍심을 갖게 됐다. 이는 앞으로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고 말한다.

청소년국악관현악단 '해마루'는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국악모임이다. 2003년 말 국악을 아끼는 몇몇 교사들이 중심이 돼 조직, 50~60명의 초·중·고·대학생이 참여하고 있



02

01.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서부 '행복나눔' 예술제는 학교 동아리 공연 발표회를 지역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02.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전통예술학교 21개 교를 지정하고 사물놀이단, 농악단, 국악취타대 등을 운영해 전통문화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다. 현재 국악단을 이끄는 (사)국악사랑 해마루는 국악인, 국악 지도교사 등 1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악지도자 인력풀을 구축해 관내 국악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또한 대구서부교육지원청 등의 지원을 받아 국악캠프, 국악레슨 등 다양한 국악교육 문화활동도 펼친다. 김신표 (사)국악사랑 해마루 대표(대구신당초 교사)는 “초·중·고 학생들의 국악체험을 위한 아해마루센터, 아해국악교실 등을 운영해 국악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악을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도 권장한다.”고 말한다.

전시 공간 '갤러리 청' 조성... 학교로 이동순화하며 감성 키워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이하 순천교육지원청)은 '감성중심 문화예술교육'을 역점사업으로 △'갤러리 청' 운영과 학교로 이동 순회 전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예술 공연 △시 지정 문화예술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이끌고 있다.

순천교육지원청 내 운영하는 '갤러리 청'은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 전시 공간이다. 지난 3월 작가 한난영(여수백초초 교감)의 작품 21점을 전시해 내방객에게 선보인 후 순천비봉초를 비롯한 6교에 이동 순회전시와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 학생들이 예술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4월에는 이종례 작가의 '인두화' 17작품을 전시한 후 희망하는 학교에 이동 순회전시를 하면서 희망에 따라 인두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 갤러리 청에는 유은주 작가의 '꽃과 풍경이 있는 이야기 전'이 열리고 있는데, 이달부터 학교로 순회이동하며 아이들의 감성을 일깨우는 데 일조하게 된다.

또한 유치원 1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를 순천시 문화예술연구학교로 지정해 학교문화 예술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체계적인 지도방법도 연구하고 있다(표 참조). 특히나 올해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면서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에 함께 동참하는 기회가 마련된 한편, 박람회 기간 내내 예술동아리 학생들은 순천 시내 일원에서 열린 '학교 DAY'에 참여해 그동안 갖고 닳은 끼를 펼쳤다.



03

〈표〉순천시 문화예술연구학교 현황(1원, 5교)

연구학교	연구 주제
순천울산유치원	세시풍속 전래놀이를 통한 배려하는 태도 기르기
순천신흥초등학교	통합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자기표현능력 신장
순천대석초등학교	학교문화예술 프로그램 탐구·적용을 통한 문화적 감수성 기르기
동명초등학교	전교생이 함께하는 기억함주 활동으로 예술적 감성 기르기
순천삼산중학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창의적 표현력 기르기
순천풍덕중학교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인성 함양



04

03. 순천교육지원청은 전시 공간인 '갤러리 청'을 청 내에 만들고, 학교로 이동 순회 전시를 하고 있다.
04. 거제교육지원청은 특색과제인 '노래하는 학교'의 구현을 위해 해마다 합창, 합주, 풍물로 초등학생 학예대회를 연다.
05. 제천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의 일환으로 올해 연극동아리 '위로'를 창단했다.



05

학업중도탈락자 예방 위한 예술동아리 운영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이하 거제교육지원청)은 학업중도탈락자를 줄이기 위한 중학교 '햇별동아리'를 운영한다. 8개 교에서 운영하는 '햇별동아리'(뮤지컬, 합창, 밴드, 풍물, 댄스 등)는 꿈 키움 교실과 연계해 학업중도탈락 예방과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햇별동아리'는 파사로운 햇별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온기와 격려를 주자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혜영 거제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예술활동은 신체활동이 많은 협동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작품의 완성과정에서는 협동심 배양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올 여름방학에는 11개교 330명의 학생이 참가해 학교별로 예술동아리 여름캠프를 운영했다. 이 캠프는 집중 연습을 통한 악기 연주 등 개개인의 실력을 키우면서 자신들의 끼를 펼쳐 보이는 장으로 마련됐다.

또한 거제교육의 특색과제인 '노래하는 학교' 구현을 위해 거제교육지원청은 해마다 초등학생 학예대회(합창, 합주, 풍물 경연대회)를 연다.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하는 초등학생 학예대회는 풍물대회(10월 12일), 합주대회(10월 16일), 합창대회(10월 17일)로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35개 초등학교에서 총 55팀, 2,050여 명이 참가할 예정. 작년 대회에 참가한 각 부문의 심사위원장들은 “예산에 비해 참가학생도 많이 늘었고 연주기능이 향상되어 수준 높은 경연대회가 되고 있다.”고 심사소감을 밝혔다.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또한 학교폭력 예방의 일환으로 올해 연극동아리 '위로(Wee擲)'를 창단했다. 위로(Wee擲)는 We(우리), ensemble(조화), 로(擲, 사로잡을)의 합성어로 '우리의 조화로움으로 지켜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위로'는 지난 8월 31일 학교폭력을 모델로 한 첫 공연을 선보였다. 관내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세형 제천여중 2학년 학생은 “평소 연기에 관심이 많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했는데 메시지도 전하면서 연기의 체계적인 기법을 배워 좋았다.”고 밝혔다. ㉠

해외 문화예술교육 동향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세계적 흐름

글 |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제교류팀장

1999년 제30회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학교에서의 예술교육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호소'가 발표된 이래, 2010년 서울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개최하기까지 국제사회에서는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지'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역시 국내에서도 그 당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한국 정부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발맞추어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 간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교육 사

례 등 국제적 동향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감대를 확장해 나갔다. 또한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 및 정책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적 흐름과 이슈에 맞게 한국 사례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본격 시행 10년 차를 바라보는 지금, 한국은 국내 정책사업의 양적·질적 향상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문화예술교육 선도국가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특성과 현황 등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예술교육



영국은 21세기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인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문화예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 문화예술교육을 정책의제로 설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들의 창의성 계발을 목적으로 삼았던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s 이하 CP)'이며, 이는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와 교육부의 협력으로 2002년 설립 이후 2011년까지 10여 년간 잉글랜드 지역 내 소외 계층 청소년들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시행되었다. CP는 학교와 예술가, 예술단체 등을 연결하여 학교에 필요한 예술교육을 실시하는데, 문화·경제적으로 낙후된 35개 지역에 약 2,500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창의성 학교(School of Creativity), 개혁학교(Change Schools), 탐구학교(Enquiry Schools)의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 중이다.

CP는 학생들이 모든 교과과정 속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매개로 창의적 사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이 창의적인 경제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의 범위는 좁은 의미의 예술가들뿐 아니라 미디어 관련 종사자 및 과학자들까지도 포함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잉글랜드 지역 소재 총 5,000여 개의 학교에서 백만여 명의 학생들과 9만여 명의 교사들이 모두 8,000여 개의 다양한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2010년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문화예술 분야 역시 대폭적인 예산 삭감조치가 단행되었고 영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지형이 급속히 위축되었으나, 2012년 <BBC Classic FM>의 디렉터 데런 힌리(Darren Henley)가 '영국의 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 in England)'이라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안서에는 '청소년 대상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젝트 활성화', '초·중등교육 커리큘럼 과정의 디자인 교



01.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성·인성 교육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이다. 유네스코 서울선언에서는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성 계발을 강조했다.
02. 영국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문화예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 문화예술교육을 정책의제로 설정했다.

육 위상 제고', '연극 및 무용 과목의 독립 과목 전환',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예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관심이 예술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취되고 있다.

프랑스 : 학교-문화기관 간 연계 예술교육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정부 부처 간 협력 하에 각 지방의 여러 문화기관들과의 협조로 기획, 진행된다. 문화부와 교육부가 공동 수립한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원칙과 목표는 더 이상 예술을 다른 과목들을 공부한 후에 배우는 과목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예술활동을 보편화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 학교는 예술의 민주화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점, 감성과 이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개발될 때 어린이는 조화롭고 균형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점, 합창·연극·무용 등 문화예술 활동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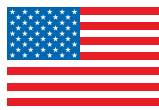
03

03. 04. 프랑스에서는 문화예술수업이 정규 교과수업으로 편성되고, 담당교사가 해당 학급 프로젝트 주체가 되어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전문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기획할 수 있다.

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와 문화기관들의 협력 안에서 예술가, 문화예술 전문가, 문화 기획자 등이 학생들과 교류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실행된다. 문화예술수업은 정규 교과수업으로서 편성되고 담당교사가 해당 학급 프로젝트의 주체가 되어 건축, 영화, 시청각, 무용, 디자인, 문학, 문화재, 사진,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전문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기획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와 문화기관의 연계 교육은 미술관 및 박물관, 도시 문화센터와 같은 문화 기관에서의 교육 기능이 강화되어 있기에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관객 연구와 문화 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 중재자들을 양성, 문화예술교육의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는 이들과 협력해 수업을 기획·진행하고 있다.

미국 : 문화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적 접근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국가인 만큼 미국의 문화정책은 문화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문화예술



04

향유의 기회'라는 민주주의적 개념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개발·보존되는 문화유산'이라는 다문화주의적 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분야이므로 미국의 문화정책은 교육 분야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와 함께 링컨센터교육원(Lincoln Center Institute, LCI)을 통해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의 예술가 상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링컨센터교육원은 예술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많은 학생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예술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예술인문학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으며, 케네디 국립예술센터의 '예술교육 장려 가이드(Arts Education Advocacy Tool Kit)'를 통해서 문화다양성 측면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뉴욕시의 경우, 교육청이 직접 예술과목의 교육을 위한 교육표준 지도서인 '블루프린트(Blueprints for teaching and learning the arts)'를 제작,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 과정까지 다섯 가지의 예술 과목에 대한 교육 표준과 목표를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일본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실행 시스템



일본의 문화예술 정책은 기본적으로 일본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활동 부흥,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그리고 문화재 보존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립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기본법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에서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및 학교교육 내 문화예술 활동의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다. 모든 아동·청소년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참된 문화예술을 경험하며 감수성과 창조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차세대 문화예술 주역은 물론, 미래 관객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능한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 발달단계에 맞추어 다채롭고 우수한 예술 감상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문화예술 체험형 워크숍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일본의 문화예술교육은 정부 주도적 선연적 문화정책보다는 '작은 정부, 큰 민간'의 모습을 띤다. 이에 정부 주도형 사업일지라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별 자체시스템 하에서 각 지역의 공공단체와 예술단체, 문화기반시설 등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반 구축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구분되고 유형화되기 전부터 문화기반시설, 시민사회, 학교, 가정 등에서는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개념과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해 왔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예술적 체험'이라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통해 '문화적 삶과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시작

되었다. 동시에 정부주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추진되면서 정책입안가, 행정가, 프로그래머, 교사, 예술강사, 교육참가자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이 각기 다른 수많은 관계자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교육현장으로부터 다져진 철학과 개념이 Bottom-up 방식으로 확산·공유되기보다는 Top-down 방식의 지원모델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문화예술교육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정의, 목적, 교수·학습 방법,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점은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이 지닌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첫째,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둘째, 사회 내의 특수계층과 일반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는 사회 문화예술교육, 셋째, 문화예술강사와 프로그램 기획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책, 넷째, 연구개발, 국제교류와 같은 기반조성 사업들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체계와 학교 밖 문화예술 자원 간의 효율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공감하여 문화부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 자아표현, 통합적 사고,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미래사회를 위한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삼고 있다.

'arts education' 'arts & culture education' 'cultural education' 등 저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따로 또 같이, 공통의 고민과 차별화된 특성을 공유하며 개별 국가들 차원에서 각자의 목적과 유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온 문화예술교육의 현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며, 앞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의 아시아적 가치를 만들어어나가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문화예술 뿌리내리는 학교 만든다

글 | 박우양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연구사



01

국민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예술교육은 미래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화두이자 관건이며, 국격 제고와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 시대는 창의적·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고, 예술교육은 창작 경험과 미적 체험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 및 유연한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창의력을 길러주고 인성을 함양하는 예술교육이 강조된다.

학생들의 창의성·인성 함양에 있어 예술교육은 핵심요소이자 중요한 수단이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중심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성의 발판이 되는 '창의적 상상력'이 배양되고, 타인과의 소통과 단체 활동 등을 통

해 정서 순화 및 인성 함양 기회가 제공된다.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성·인성 교육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이다. 유네스코 서울선언(2010.5.25~28)에서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성 계발을 강조하였고, 예술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부 차원에서는 최초의 공식적인 방안이 수립·추진됨으로써 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내외에 천명되었다. 이는 그간 거의 도외시되었던 예술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예술적 소양 계발을 지원한다. 또한 공교육 내 예술교육 기회 확산을 통해 예술적 잠재력을 실현하고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 충족 및 사

※ 서울 선언 Seoul Agenda : 예술교육 발전 목표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2010.5.25~28, 서울)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3개 목표와 그에 따른 12개 실천과제가 이루어짐

목표1.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하여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요소로 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

목표2. 예술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목표3.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한다.

교육비 절감을 위한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술교육 사업은 학생들의 예술적 능력 향상과 인성 함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운영되어 온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등은 교내 및 지역사회 내 통합, 문화예술 활동, 학교 부적응 감소 등 우수한 운영사례들을 남기고 있다. 특히, 올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생뮤지컬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학생오케스트라, 예술동아리, 예술중점학교, 예술교육선도학교 사업 등 다양한 예술교육 활동을 운영해 오고 있다. 사업별로는 매뉴얼 개발, 현장 컨설팅, 교사연수, 페스티벌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오고 있다.

학생오케스트라·학생뮤지컬 사업 운영

교육부 예술교육 사업을 사업별로 소개하면,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201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이 있다.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예술적 능력과 인성을 함양

01.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예술적 소양 계발을 지원한다. 사진은 미술 분야 예술중점학교인 송곡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활동 모습

02. 교육부는 예술교육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65개 초·중·고등학교를 선정, 학생 오케스트라를 지원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학교 간 연계를 통해 학생 4천여 명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이루어졌다. 2012년에 150교 추가, 2013년에 100교 추가 지원하여 2013년 현재 전국 초·중·고 400교에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 운영(서울대학교 사업단, 단장 김영률 학장)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지도교사 지휘법 연수, 운영학교 현장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11월에는 전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2박 3일, 5천 명 참가)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 연습하고 우의를 다지며 대공연장에서의 연주 경험을 통한 성취감 향상 및 자긍심 고취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학생뮤지컬' 사업이다. 전국 130교에서 시작된 학생뮤지컬은 음악, 무용, 연기, 춤, 극본 등 통합적인 예술로서 상호 소통과 이해, 협동심, 자아 존중감, 학교생활 만족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학생뮤지컬 사업단(성신여대, 단장 김중현 교수)을 통하여 운영 매뉴얼 개발, 교사연수, 전문적인 현장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뮤지컬 100선' 등의 정책연구뿐 아니라 국내 정



02



기획 I '기적'을 연주하는 문화예술교육

03

03.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학생뮤지컬 사업에서는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와 저명한 뮤지컬 음악감독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뮤지컬클래스를 지원한다. 사진은 교사 연수로 진행된 '남경주의 뮤지컬클래스'

04. 교육부는 지난해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 씨를 초청해 예술중점학교인 효자중에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다.

05. 교육부는 도예, 조각, 영상, 댄스 등 다양한 예술동아리 500개를 지원한다.



04

상급 뮤지컬 배우와 저명한 뮤지컬 음악감독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뮤지컬클래스 지원도 하고 있다. '남경주의 뮤지컬클래스'에서는 뮤지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주요 뮤지컬넘버를 들려주며 학생들이 뮤지컬을 직접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뮤지컬을 통해 진심으로 노래를 부르고 관객과 호흡하는 과정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예술적 동기부여와 창의성 증진,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 예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예술교육 중점·선도학교 운영

‘예술중점학교’ 사업은 일반 중·고교 학생 중 예술에 소질·적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 실시를 위해 예술중점과정을 설치하여 심화된 예술교육을 실시하며, 2010년 5월에 23개 예술중점학교를 선정(음악 13교, 미술 8교, 공연영상 2교)한 이후, 2013년 올해에 122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중점학교는 일반 교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이 예술에 관심이나 소질이 있는 것 같지만 선뜻 예술 중·고교로 입학を決정하기가 어렵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학교이다. 교육통계(2009년)에 따르면 예술·체육 계열 대학 입학생 6만 4,694명 중 예술·체육고교 졸업생은 7,884명으로

12.2%에 불과하다. 예술중점학교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계에서 내놓은 대안이기도 하지만, 예술중점학교의 최종 목표는 대학교 입시를 위한 예술교육이 아닌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이다. 예술중점학교 사업단(국민대학 사업단, 단장 김인준 교수)을 통하여 운영 가이드북 지원,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 시·도교육청 장학사 워크숍, 전국 학생캠프,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2012년부터 예술교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예술교육선도학교’ 사업이 있다. 최근에 학문영역에서 협동연구를 지향하는 학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예술·문화영역에서도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해 과목 간 유기적 연계성을 강조한 교육이 필요하며, 순수예술 중심의 교육을 넘어 새로운 개념의 예술교육(예술 교육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70교를 선정, 음악·과학 및 미술·연극 등 융합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체험중심 활동·토의활동 강화 등 수업방법 개선을 통해 달라진 예술(음악·미술) 수업을 시도하고 있다. 예술교육선도학교 사업단(부산교육대학 사업단, 단장 양종모 교수)은 타 교과와 예술교과의 교과융합, 교과 내의 융합 및 체험을 위한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장 가이드북 개발 및 지원, 교사연수, 시·도교육청 장학사 연수회, 학술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 동아리·강사 적극 지원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예술동아리 사업’이 있다. 2012년 학교폭력 추진사업 중 하나로 시작한 예술동아리 사업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계발뿐 아니라 인성·적성 개발, 사회성 함양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예, 조각, 사진, 영상, 성악 등 다양한 예술동아리 500개를 지원하여 활동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학생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으로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 특수·대안학교(초 5,040, 중 1,361, 고 729, 특수 119, 대안 5)에 8개 분야(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총4,485명의 강사들이 총7,254교에 파견되어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교 교사들이 지도할 수 없는 전문 분야의 실기 중심 교육으로 지도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다양한 예술분야의 전문성 있는 교육으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술교육으로 인성·사회성 등 함양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학교 예술교육 사업을 실시한 결과, 예술교육 참여를 통한 학생들의 인성·사회성·도래관계 등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표1>, 예술교육 사업 프로그램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흥

<표1> 예술교육 참여를 통한 학생들의 인성·사회성·도래관계 변화

대상	문화	자기인식 변화	자신감 변화	도래유능성	도래관계 변화	학교적응력 변화
	초등학생	779(81.5%)	743(77.7%)	822(85.9%)	856(89.6%)	820(85.7%)
대상	문화	학교생활태도 변화	자기효능감 변화	자신감 향상	공동체인식 변화	교사관계 변화
	중·고등학생	1,126(85.8%)	1,098(83.7%)	1,102(83.9%)	1,207(91.9%)	1,125(85.7%)

(2012년 이화여대 학교예술교육지원센터)

<표2> 예술교육 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대상	문화	흥미도	참여도	강사만족	공동체인식 변화	추천도
초등학생		895(93.6%)	834(87.2%)	872(91.3%)	851(89.0%)	841(88.0%)
중·고등학생		1,172(89.3%)	1,182(90.0%)	1,172(89.3%)	1,125(85.6%)	1,167(88.8%)

(2012년 이화여대 학교예술교육지원센터)



05

예술동아리 운영 분야(예시)

미술	도예, 조각, 공예, 만화/애니, 사진, 실험창작(액션페인팅, 퍼포먼스 등)
음악	아카펠라, K-Pop, 통기타, 밴드, 송라이트(작곡/작사), 음악극, 풍물 등
공연 영상	댄스, 비보이, 연극, 영화, 행위예술(연극+음악, 연극+미술) 등

미도, 참여도, 강사만족도, 선호도 등의 문항에서 초·중·고등학생 모두 85%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표2>.

교육부는 학교 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친밀함을 고취하고,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 학생들의 음악적 소질을 계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예술교육 사업을 통해 공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음악적 재능 계발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함께 악기·노래를 배우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유대감을 높이는 등 바람직한 인성 함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예술중점학교

사교육 부담 없이 예술적 재능 키운다

글 | 김인준 국민대학교 학교예술교육지원센터 단장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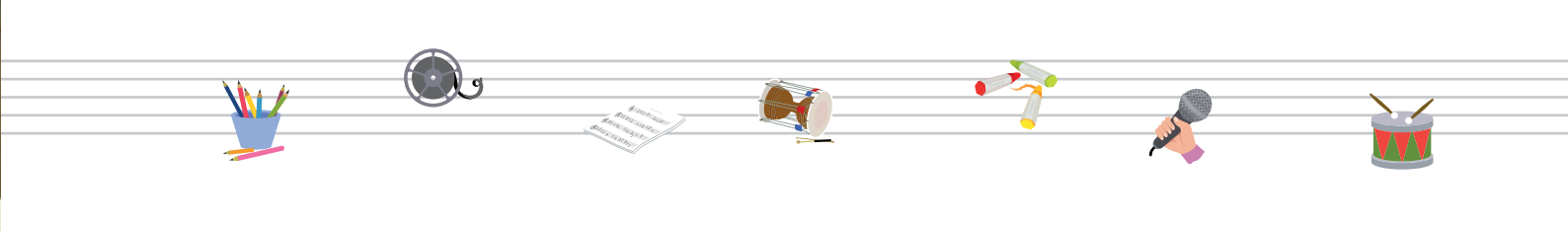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아이들의 장점과 소질을 살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우리 아이가 사물을 관찰하는 힘이 있고 그림에 소질이 있지만 어떻게 소질을 계발해야 하는지' 몰라 마음만 분주하기 일쑤다. 혹은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지 몰라 허둥대는 경우도 많다. 특히나 예술가로 키우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부모들에게 상당한 걱정거리다.

이러한 예술교육을 보편적 교육으로서 바라보고 시작된 프로그램이 예술중점학교다. 2009년부터 교육부는 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학교 의견을 조사하여 2010년에 예술중점학교 23곳을 지정했다. 이들 학교는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 중 예술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위한 예술 중점과정을 설치하고, 심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학교 정규 시수 안에 예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재능과 창의력 발현,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교 밖 외부 예술단체, 예술가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국·미국의 방식과는 차별화된다.

음악·미술·공연영상 중심 23개 교 운영

3년 차 되는 올해는 예술중점학교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채운 의미 있는 해다. 초반에는 예술중점학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일선 학교들도 이제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대한 학부모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인기 있는 학교가 되었다. 예술중점중학교는 시·도 입학관리위원회에 선 지원 후 추첨을 통해, 예술중점고등학교는 학교별 추천, 면접으로 선발하여 예술중·고등학교처럼 입학하기 까다롭지도 않으니 학부모들과 학생들 모두 환영이다. 이는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예술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 및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 취지를 잘 살린 것으로 예술 관련 교육은 사교육 부담이 크다는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예술중점학교는 음악중점(13학교), 미술중점(8학교), 공연영상중점(2학교)으로 각 분야를 선택하여 입학하게 된다.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과 각 분야의 전문 예술과목에 대한 시수 안배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02



03

권역별 예술중점학교로는 서울권은 5개 학교로 송곡여자고등학교(미술), 동국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공연영상), 대원여자고등학교(음악), 영림중학교(음악)며, 대구권은 3개 학교로 소선여자중학교(음악), 성당중학교(미술), 대구제일고등학교(미술), 인천권은 2곳으로 인천여자중학교(음악)와 인천예일고등학교(미술)다. 대전권은 1곳으로 신일여자중학교(미술)이며 경기권은 은혜중학교(음악), 장호원중학교(음악), 효자중학교(음악), 동광고등학교(미술), 충현고등학교(공연영상)로 총6곳이다. 강원 봉의고등학교(음악)와 충북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음악), 충남은 2곳으로 부리중학교(미술),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음악)며, 경북 진평중학교(음악), 포항항도중학교(미술), 경남 계룡중학교(음악), 진영중학교(음악)로 총23개 학교다.

사교육 부담 없이 다양한 예술수업 운영

예술중점학교는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자신감, 정서적 안정, 학습 동기 유발 및 창의성 함양과 같은 전인적인 교육효과를 구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나, 학교 현장을 분야별 유명 예술인이 찾아가 '예술가로서의 삶', '예술의 지향점' 등의 강의 및 개별 레슨

01. 예술중점학교는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 중 예술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7월 전국의 예술중점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름캠프 'Youth Arts Festival(YAF)'

02. 신내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벽화봉사에 나선 미술분야 예술중점학교인 송곡여고 학생들

03. 예술중점학교 학생들은 예술적 소양을 통해 '인간적 성장'을 한다. 사진은 성당중 학생들

을 개인교육기부 형식으로 운영,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수업시간에 연마한 기량을 통합발표회 등을 통해 학부모 및 일반 시민에게 선보인다. 또한 분야별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지역과 소통하기도 하는 등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의 장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당 초기시설비 2억, 학급당 운영비 2,500만 원을 5년간 지원하게 된다.

실제로 대구 성당중학교 예술중점반 학생들은 '소외된 이웃과 하나 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아이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옷이나 모빌 등을 직접 디자인하고 '부모님이 없는 보육원 아이들', '다문화가정' 등에 선물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환경이 다르면 사람까지 다를 것이라는 편견을 깨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짜 마음으로 다가가는 법을 배운다. 성당중학교 예술중점반의 가장 큰 변화는 미술 실력의 향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간적 성장'으로, 아이들은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우리들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고 결과물 하나를 탄생시키는 과정을 통해 개성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며 양보하는 법을 체득하게 된다.



사회적 약자 위한 예술교육 기회 제공

올해 인천여자중학교에는 자체 2급 진단을 받은 학생이 음악중점반에 입학하게 되었다. 사회적 약자가 학교에서도 약자이기 쉽다. 약자에 대한 왕따 문제는 학교나 사회나 그 유형이 유사하다. 지적 장애로 인해 왕따가 되기 쉬운 상황이었음도 불구하고 음악이 매개가 되어 친구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동광고등학교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전공하기를 희망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미술전공을 포기해야 했다. 그런데 동광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다시 미술을 시작하여 지금은 미술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교 진학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받은 미술교육을 라오스 초등학교에서 멘토링 봉사, 벽화봉사 등을 통해 재능을 나누고 있다.

이렇듯 예술중점학교를 통하여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 및 재능이 발현된 사례는 무수하다. 학교가 즐거운 놀이터이자 배움의 장소며 꿈을 이루는 공간이 된 것이다.

예술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앞장

올해 초 교육부는 일선 예술중점학교의 업무를 돕기 위

해 운영주체를 공모하여 국민대학교가 운영주체로 선정되었다. 국민대학교 학교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예술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중이다.

그중 올 7월, 전국의 예술중점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Youth Arts Festival(YAF)'을 국민대에서 2박 3일간 진행했다. 모두 508명의 학생이 참여한 대규모 축제였다. 국민대학생들이 멘토 자원봉사자가 되어 10명의 학생에 한 명의 멘토를 배정,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YAF는 기존 예술교육의 기능중심 교육과 달리, 나와 예술과의 관계, 예술을 통한 타인과의 소통, 사회 안에서 '나는 예술을 매개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고, 보다 심화된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를 통해 '문화의 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행복을 준다.'고 했다. 예술중점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스스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작은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04



04. 교육부는 2010년 음악, 미술, 공연영상 분야 예술중점학교 23곳을 지정했다.

<표> 예술중점학교 운영

구분	일반계 중·고등학교	예술중점학교	예술고등학교
모집대상	일반학생	예술에 흥미와 관심이 높은 학생	예술적 성취능력과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
학교규모	학급당 35명 기준, 지역 여건에 따라 규모 결정	예술중점학교 학년당 2학급, 학급당 30명 내외	학급당 35명 기준, 지역 여건에 따라 규모 결정
교육과정	일반 교육과정에 준함	교육과정에 예술교과 이수기회 확대, 예술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 교과 신설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준함

2013 교육부지정 학생뮤지컬



“학생들과 함께
뮤지컬과 함께
행복한 꿈을 만들겠습니다”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STUDENT MUSICAL PROJECT
학생뮤지컬사업단™

노봉곤 대전샘머리초등학교 교장

근무지마다 논 만들어 노작 경험...

“아이도, 식물도, 사랑을 먹어야 바르게 큼니다”



01

노봉곤 대전샘머리초 교장은 3년 전 도시 학교에 ‘학교 논’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한 모씩 책임지고 1년 농사를 지었다. 농촌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고 가을운동회 대신 지역주민들과 타작마당 축제를 열었다. 푸르게 물든 학교는 아이들을 순박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듯 학교에서 키우는 벼는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두 손으로 소중히 어루만지며 ‘잘 자라다오.’라고 속삭이는 사이 아이들 마음도 어느새 고와지지요. 성장은 사랑을 양분으로 할 때 올바르게 이뤄집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노봉곤(61) 대전샘머리초 교장은 3년 전부터 도시 학교에 ‘학교 논’을 만들었다. 붉은 대야에 흙을 채우고 아이들에게 벼를 한 모씩 심도록 했다. 전교생 1,400명 중 4~6학년 470여 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했다. 1~3학년은 쪽파·대파·들깨 등 밭작물을 심어 대야에 텃밭을 일구니, 교문 입구부터 늘어선 총165개의 대야 논과 텃밭이 학교를 푸르게 물들였다.



02



03

“푸르른 자연 환경에서 순박하고 고운 마음씨를 가꾼다.”는 노 교장은 무럭무럭 자란 아이들의 인성을 벼와 함께 수확할 기대로 가득 차있다.

농사짓는 교장, 도시 학교에 논을 만든다

“쌀은 어디에서 나오요?”

2010년 대전 원평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였다. 주식으로 먹는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모르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질문을 던지는 도시 아이들을 보며 그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렇다면 학교에 벼를 심어 농촌 체험을 해보면 어떨까. 그는 직접 트랙을 몰고 도매시장에 가 대야 100개를 사왔다. 그러나 대야에 논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건 농민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충남 홍성친환경작목회와 인연을 맺은 노 교장은 홍성군 홍동면의 농민들과 결연을 맺고, 대야를 잇대어 만든 ‘학교 논’에 첫 모내기를 할 수 있었다.

벼를 심고 키우면서 노 교장은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건넸다. “애들아, 선생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듯 벼도 사랑을 받아야 잘 큰 단다. ‘사랑한다.’고 자주자주 이야기 해주렴.”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벼를 소중히 여겼다. 쉬는 시간에 찾아가 잡초도 뽑고, 벼와 속삭이듯 이야기도 나눴다. 급식에서는 밥 한 톨 남기는 것을 아까워하며 농부들에 대한 고마움도 깨달았다.

나란히 늘어선 붉은 대야 안에는 여섯 개의 모가 심어져 있다. 도심 속 ‘학교 농장’의 의미를 담아 여섯 아이들이 스스로 이름을 정해 놓았는데, ‘유기농 스타 농장’, ‘싱글빙글 농장’ 등 이름도 제각각이다. 각 농장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아이들은 생명존중과 더불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있다. 노 교장은 “자연스럽게 언어가 순화되고 폭력적인 성향도 줄었다.” 말한다.

- 01. 노봉곤 교장은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벼를 가꿔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 02. 노 교장은 홍성군 홍동면의 농민들과 결연을 맺고 ‘학교 논’에 첫 모내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 03. 1~3학년은 반별로 대야에 쪽파, 대파, 들깨, 토마토 등을 심어 텃밭으로 가꾼다.



04



05

운동회 대신 ‘타작마당’ 축제 연다

한 학년은 해마다 농촌으로 1박 2일 체험을 떠난다. 아이들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의 농촌 마을에 머물면서 모내기를 체험하고 논길을 걸으며, 농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평범한 농촌의 일상을 아이들의 경험을 통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 교장의 아이디어다.

“두 눈을 감은 채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말해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사방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눈에서 들리는 개구리 소리…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연을 최대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지요.”

벼를 수확하는 가을에는 운동회 대신 ‘타작마당 축제’를 연다. 결연을 맺은 농민들과 함께 벼를 낫으로 베고, 후탈에 훑어서 타작하고 도정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돕는다. 축제 날 ‘뽕이야!’ 소리는 아이들이 가장 반기는 소리. 수확한 쌀을 그 자리에서 직접 뽕튀기 기계로 쌀과자를 만들고 쌀 음식 시식코너를 별도로 뒀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했다.

한쪽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의 장으로 열었다. 수확 첫 해에 노 교장은 돼지 두 마리를 잡아 지역 어르신들까지 초청해 축제 열기를 더욱 높였다.

노 교장의 이러한 시도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농부

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한편,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효과를 나타내자 학교 논은 2011년 14개 교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과 충청지역 100여 개교로 확대됐다. 또한 충남도는 올해 3억 원을 ‘학교 논 조성사업’에 지원하는 등 지자체 성공 사업 사례로 기록되는 결실을 맺었다.

사랑이 없는 교사는 ‘죄악’이다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노 교장은 벼처럼 쭉쭉 크는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교사가 되길 참 잘했다는 생각에 흐뭇해진다.

“교사가 ‘성직’이라는 걸 40여 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사는 정말 소중한 직업이란 생각이 들어요. 벼 한 모를 키우는 데도 이렇게 사랑과 정성이 필요한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교사들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지요.”

그래서 그는 ‘교사는 교사다워야 한다.’고 말한다. 교사의 권위는 아이들이 세워주는 것이니 교사 스스로 바르셔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교사의 자질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가 사랑, 둘째가 열정, 셋째가 전문성이다. 사랑이 없는 교사는 ‘죄악’이라는 그는 열정보다 사랑이 먼저 앞서야 한다고 말한다. 노 교장은 지난날 열정이 너무 지나쳐 본인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듯 학교에서 키우는 벼는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두 손으로 소중히 어루만지며 ‘잘 자라다오.’라고 속삭이는 사이 아이들 마음도 어느새 고와지지요. 성장은 사랑을 양분으로 할 때 올바르게 이뤄집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도 모르는 사이 아이들을 힘들게 만든 건 아닌 지 후회될 때가 있다고 했다. 승진에는 무관심하며 수업연구에만 매진하던 그는 ‘실속 없다’는 주위의 말에도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 어느 때는 매섭게 아이들을 채근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일이다.

교장이 된 지금은 ‘학교는 교장보다 클 수 없다’는 말에 공감하고 있다. 교육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교장의 역할이 누구보다 크다는 의미이다. 노 교장은 리더십을 발휘할 때 ‘백일론’을 강조한다. 처음 100일을 제대로 해보라는 뜻이다.

“처음 만나고 난 후 100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믿고 따라올 수 있겠지요. 서로 신뢰가 싹트면 그 다음 일은 물 흐르듯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특히나 중요한 건 진실성입니다. 진실로 대할 때 상대방도 나를 믿게 되겠지요.”

노 교장은 불만을 가진 교사들과 1:1로 깊은 대화를 나눈다. 2~3시간이 넘도록 자신의 취지를 설명하며 속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는다. 아이를 위하는 일을 한다는 진정성은 교사들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다

노 교장은 올 가을 그려질 학교 모습이 벌써 눈에 선하



07

04. 05. 붉은 대야마다 ‘1인 1모’씩 여섯 개의 모가 심어져 있다. 여섯 명의 아이들은 상의해 이름을 정하고, 공동으로 ‘학교 농장’을 관리한다.

06. 학생들은 수시로 논과 텃밭을 둘러보며 식물들의 생육 상태를 살핀다.

07. 노 교장은 교사는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다. 황금빛으로 물든 벼가 고개를 숙이고 모이를 찾아 참새 떼가 날아오고… 학교 논마다 허수아비도 우뚝 세워질 터였다. 학교 담벼락을 반까지 자란 제비콩 넝쿨도 시간이 지나면 학교를 더욱 푸르게 물들이게 될 것이다. 노 교장은 학교 환경을 녹색으로 바꾸기 위해 부임 초 학교 현관 간판도 남청색에서 녹색으로 바꿨다.

“내가 머문 자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자고 마음속에 항상 떠올립니다. 부임해서 선생님을 만나 처음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하고, 지금 안 하면 언제하며, 여기서 안 하면 어디서 하냐’고요.”

퇴임 후를 준비하는 건 노 교장에게 별 의미가 없다. 지금의 일을 충실히 해내는 일에 집중하다보니 퇴임을 앞둔 교장이라고 해서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건 그에게겐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②

경기 평택 청북중학교

그림 같은 학교에서 꿈·끼 키운다
지역사회와 힘 모아 ‘작지만 크게’ 도약



01

경기 평택에 위치한 청북중(교장 여정숙)은 현재 학생 수가 90명을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학년별로 한 학급씩 꾸려진 작은 학교다. 지역 내의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작은’ 학교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청북중은 2만평 규모의 학교 부지를 자랑하는 ‘커다란’ 학교이며, 농촌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체능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역교육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한 내실있는 학교 운영을 하면서 또 다른 의미의 큰 학교로 불린다.

약속시간보다 조금 일찍 학교에 도착한 탓에 가볍게 훌터본 교정이 기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2층 규모의 낮은 본관을 거쳐 학교 운동장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축구경기장 크기의 드넓게 펼쳐진 천연 잔디운동장과 울창한 나무들로 빼곡히 둘러싸인 교정이 한눈에 들어왔다. 무엇인가 홀린 듯,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몸을 옮길 때마다 발등에 닿는 촉촉한 잔디의 감촉이 느껴진다. 그리고는 발등에 올라탄 뭔가 낮선(?) 생명체에 화들짝 놀라 몸을 움찔했는데, 아뿔사! 이것이 여치였던가? 여치들이 천연 잔디운동장을 제 놀이터 삼아 팔딱팔딱 멀리뛰기를 하고 있었다. 신기한 마음에 여치 삼매경에 빠져있을 때쯤 ‘푸드득’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쾅 한 마리가 날아와 운동장을 헤집고 다니며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청북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넓은 학교 부지와 휴양림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학교의 경관에 매료되고 농촌의 소규모 학교지만 지역사회와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알짜배기 교육활동을 펼치는 모습에 또다시 매료된다. 그 비결이 뭘까.

예체능 중심의 방과후학교 활발

먼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예체능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꼽을 수 있다.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개설된 밴드, 사물놀이, 피아노, 댄스, 배드민턴, 축구 등의 강좌를 통해 전교생이 특기 신장에 나선 것이다.

청북중의 행복지수는 90% 수준. 여정숙 교장은 “우리 학교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방과후학교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교장은 “학습 중심이 아닌 학생들이 원하는 예체능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의 모든 부서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자율동아리 활동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방과후학교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학생은 처음엔 마냥 해보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밴드’ 동아리였는데, 지금은

밴드공연의 매력에 빠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친구들과 함께 모여 연습하는 게 즐겁다고 귀띔했다. 방과후에 주2회 2시간씩 외부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밴드의 매력에 흠뻑 빠진 학생들이 차츰 밥 먹는 시간을 쪼개서 자율적으로 동아리실에 모여 함께 연주하며 화음을 맞춰 나간다. 자율동아리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다시 외부강사가 지도하는 방과후학교와 연계되면서 학생들의 밴



02

- 01. 휴양림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청북중은 지역사회와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알찬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 02. 여름방학 중에도 공연준비를 위해 동아리실에 모여 연습하는 밴드부 학생들
- 03. 도서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



03

드 실력도 열정도 배가되고 있다. 특히 밴드부는 학교 내 외의 다양한 행사에 초청되어 그 기량을 맘껏 뽐내고 있다. 기자가 학교를 방문한 날도 여름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오르게 될 무대 준비를 위해 동아리실에 모여 공연준비가 한창이었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색소폰 앙상블

또한 청북중은 지역 교육인프라 활용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연계 동아리 활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자동차 정밀측정조립장비 전문회사인 텔스타-홈텔(주)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주)유라-코퍼레이션과 함께 교육·재능 기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텔스타의 경우, 학생들에게 기업체 견학을 비롯해 진로의 날 특강 등을 통해 진로의식을 높이는 한편, 학교발전 기금 기부 등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밖에도 현장에서 배우는 ‘로봇연구반’을 운영, 학생들이 텔스타의 기술개발연구실에서 전문연구원로부터 기계 및 키트조립 등 로봇의 제작 원리를 배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협약업체에서 악기(색소폰)를 기부하고, 학교에서 악기 연주를 지도할 외부강사를 지원하면서 ‘청북-텔스타 색소폰 앙상블’이 탄생하였다. 색소폰 앙상블은 청북중 학생, 교사, 학부모, 협약업체 직원 등 28명이 만들어가는 교육 공동체 음악 동아리이다.

여정숙 교장은 “얼마 전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를 열고 그동안 갖고 닦은 색소폰 연주 실력을 뽐냈다.”며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도시에서도 쉽게 배우기 어려운 악기인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앙상블을 이루면서 학생들의 애향심을 기르고 지역사회에도 학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주)유라-코퍼레이션의 경우, 학교에 버스를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체험활동 시 크게 불편을 겪었던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최상돈 교감은 “우리 학교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 학생들이 이동할 때마다 불편이 컸는데, 인근의 기업체에서 통근용 버스를 지원해주어 평일 낮에 이뤄지는 체험활동, 주말에 이뤄지는 ‘주말 버스 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설명한다.

한편, 색소폰 앙상블 동아리와 더불어, 주민과 함께 하는 ‘사물놀이반’은 학생들에게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학생 15명과 주민 10여 명으로 구성된 사물놀이반은 평소에는 따로 연습하지만 행사를 준비할 때는 일정기간 모여 함



04. 평택시 찾아가는 시민음악회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고 있는 ‘청북-텔스타 색소폰 앙상블’
05. 여정숙 교장(가운데)이 교직원·학생들과 학교 숲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06.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어우러진 ‘사물놀이반’의 공연 모습
07. 생태체험장에 마련된 유채꽃 길

근태) 등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 관리하며 게시판에 공지하여 학생들이 수시로 마일리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일리지 누적 점수에 따라 우수학생은 중국(2010년 22명, 2013년 20명), 캄보디아(2011년 22명), 일본(2012년 22명) 등 해외연수의 기회를 얻고 있다. 연수

계 호흡을 맞춘다. 평택농악을 전수하는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부족한 실력을 보완하여 한 단계 높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사물놀이반’은 실력이 꾸준히 향상돼 지난해 평택시 소사벌 단오제와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에서도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개인 기량이 크게 신장되어 평택시청 청소년종합예술제에 밴드부와 함께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자유학기제’ 운영, 꿈을 찾는 새로운 기회

또한 청북중은 농촌학교의 특징을 살려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체험장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펼치고 있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텃밭 36개소를 희망학생 50명에게 분양하여 직접 채소를 재배하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생태체험장 2천평을 개간하여 지역주민과 알타리무를 재배·판매하였으며, 유채꽃을 재배하여 유채꽃 길 걷기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재배한 농산물로 김치를 담가 인근의 요양원 등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일부 농산물을 판매한 수익금은 학생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한편, 청북중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청북꿈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청북꿈마일리지는 학력(정기고사, 방과후 수준별), 특기(독서, 방과후 특기·적성 동아리, 축제, 자율동아리), 인성(그린마일리지, 봉사, 수상,

경비 가운데 60%는 학교에서 지원하며, 40%를 자비부담하고 운영한다.

한편, 청북중은 올해 학교현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이기도 하다. 9월 본격 시행하는 ‘자유학기제’가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근까지 막바지 준비과정을 거쳤다.

“우리 아이들은 동기와 자극이 부족해 상당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이 뭔지 모릅니다. 16회의 진로캠프 가운데 ‘내 꿈을 찾아서’(4회 진행)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특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꾸준히 준비해온 이길호 교사의 설명이다.

청북중은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제작반, 사진반, 만화제작반, 애니메이션 제작반 등 학생 선택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음악 심화과정으로 플루트반, 기타반, 색소폰반을 운영하며, 국어·영어·수학 교과 프로젝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생들에게 농촌의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학부모 진로코치단 활동을 통해 육군사관학교, 떡박물관, 기자, 경찰, 항공 관련, 방송 체험 등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고 포트폴리오 작성, 진로검사, ‘진로의 날’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 서머스쿨’

방학마다 수학, 인문 분야 30개 강좌 개설 진로체험과 대학전공 연계하며 창의·융합수업 진행



01

‘고교 서머스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11년 고교생의 창의·융합교육을 위해 고안한 창의성 계발 프로그램이다. 여름방학 기간 고교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토론·실험 수업 중심의 교육 강좌가 다채롭게 열린다. 올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30개 강좌가 개설·운영됐다.

“수채화를 그리는 이유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유화는 잘못 채색되어도 그 위에 덧칠하면 되지만 수채화는 한 번 채색하고 난 후엔 수정할 수 없어요. 단 한 번에 그려내야 하는 수채화만의 매력이 자꾸만 붓을 들게 하네요.”

지난 8월 13일 오전 11시, 부산미술대전이 열리는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에서 이필홍 화백이 고교생 20명 앞에 섰다. 그는 ‘1일 도슨트(작품을 설명해 주는 안내자)’가 되어 출품 작품을 학생들에게 소개한 후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작가와의 만남은 학생들의 예술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왜 수채화만 그리는지’,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등 질문이 꼬리를 잇는 사이 그림을 감상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사뭇 진지해 진다.

체험활동 중심 프로젝트 학습으로 고안

이날 수업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인 ‘고교 서머스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아프리에 탐방 및 작가 인터뷰를 통한 예술문화 이해’ 강좌로, 관내 일반계 고교 1~2학년 20명이 참여했다. 8월 3일부터 14일까지 학생들은 총28시간에 걸쳐 예술문화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했다. 강좌 첫날 지도 앱을 이용한 국내 미술대학 탐방에 이어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티셔츠 이미지 그리기, 작가 작업실 탐방 및 작업체험, 유명 미술가 탐구와 가상 인터뷰 등이 다양하게 이뤄졌다. 학기 중에는 이뤄지기 어려운 예술문화 체험활동 위

주의 프로그램이 수업의 특징. 강좌를 기획한 박해원 낙동고 미술교사는 “일반고 미술수업은 입시에 밀려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 그러나 예술작품을 보고 즐길 줄 아는 능력은 삶을 매우 풍요롭게 만든다. 방학 기간 학생들이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 목표를 두고 수업을 연구했다.”고 말한다. 박 교사는 지역 내 예술가의 협조를 구하고 체험·흥미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고안했다. 집안의 공예품, 골동품 등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소개하는 ‘나만의 진품명품’과 피카소, 달리 등 유명 미술가와의 ‘가상 인터뷰’ 등이 대표적이다. 수업 도우미로 박재형 용두중 미술교사, 김애경 부산시립미술관 도슨트가 협력하고, 정지현 동서대 디자인과 2학년 학생이 보조교사로 나섰다.

진로와 연계된 체험으로 구성… 대입 준비에 적극 활용

4일째 과정은 ‘도슨트 체험’. 지난 시간 부산 문화창작공간 ‘또따또가’에서 4인 1조로 작가를 인터뷰하고 공방에서 직업체험을 했다면, 이번에는 미술관 작품 해설사로 나섰다.

학생들은 오전에 이필홍 화백과 만나 작품 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스스로 도슨트가 되어 친구들 앞에



02

01. 학생들은 미술관 도슨트가 되어 전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소개했다.
02. 이필홍 화백은 ‘1일 도슨트’가 되어 작품을 학생들에게 소개한 후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섰다. 각자 전시 작품 중 1개 작품을 선정한 후 3분 동안 자신의 느낌과 감상을 가감 없이 표현했다. 다양한 작가와의 만남은 작품을 해석하는 힘이 됐다.

“송미나 작가의 ‘하늘채168’이란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면 가파른 계단 위로 힘겹게 오르내리는 사람들과 옆으로 보이는 쪽방촌이 가난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절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맞이하듯 활짝 열린 대문과 빨랫줄에 주렁주렁 걸린 빨래들은 가난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도슨트로 나선 전상민 군(상도고 2학년)의 꿈은 광고기획자다. 전 군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디자인, 예술적 감각을 배우기 위해 이번 강좌를 신청했다. “광고기획자가 되면 ‘하늘채168’과 같은 희망을 전하는 광고를 만들고 싶다.”는 그는 “미술 교과 성적은 전교 1등이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웃는다.

게임 일러스트를 꿈꾸는 최정인 양(다대고 1학년)에게는 이번 수업이 훌륭한 입학사정관 자료가 됐다. “예술작품을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봤다. 드로잉만큼이나 채색이 중요한데 색을 잘 쓰는 작품을 접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예술을 대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는 문운정 양(낙동고 2학년)은 “예술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서 보이도록 시각화한다는 걸 알았다. 강정훈 작가를 만나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경험하고 노력하는 예술가의 열정을 배우게 됐다.”고 말한다.

부산대 등 9개 지역대학 참여 강좌 개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시작한 ‘고교 서머스쿨’은 고교생의 창의·융합교육을 위해 고안된 창의성 계발 프로그램이다. 여름방학 기간 고교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토론·실험 수업 중심의 무료 교육 강좌가 다채롭게 열린다. 올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30개 강좌가 개설·운영됐는데, 일찌감치 강의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다. 김주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는 “창의적 과제해결을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과 연계해 대학전공을 탐색하도록 하고 진로체험 내용에 중점을 둔 것이 인기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개설 강좌는 공모된 81개 강좌 가운데 선정된 것으로, 올해는 지역대학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고신대, 부산대, 부경대 등 9개 지역대학에서는 수학, 과학, 인문, 공학, 사회과학, 예술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학의 첨단 기자재를 활용하고 토의·토론 중심으로 대학교수가 직접 강의에 나섰다. 부산대 나노메카트로닉스공학과에서는 ‘수소연료전지의 작동원리 탐구 및 제작실험’ 강좌를, 고신대 생명과학부에서는 ‘카드뮴에 중독된 생쥐 정소세포의 전자현미경적 연구’ 강좌, 곤충을 이용한 법의 및 법생물학



03. 박해원 교사(앞줄 중앙)와 강좌 수강생들
04. 염서에 그린 학생들의 그림. 학생들은 각자 선택한 작품을 염서에 그리고 간단한 감상을 적어 놓았다.
05. ‘역사 인물을 통한 역사의식의 이해와 리더십 연구’ 강좌 수업
06. ‘화끈 화끈 화학’ 강좌. 학생들이 카페인 추출 실험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적 접근을 소개하는 ‘사체곤충과 법의생물학’ 강좌를, 동의대 영화학과에서는 ‘HD 단편 영화 워크숍’이라는 강좌를 통해 ‘잠자던 나를 깨워라!’와 ‘영화 만들기’라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주안 장학사는 “지역대학이 주관하는 과목들은 대학 장비를 활용해 고교에서는 하기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설명한다.

창의·융합수업으로 이색 프로젝트 학습 진행

또한 학생들의 발표력과 사고력, 창의성 신장은 물론이고 사회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위한 ‘시사토론을 통한 고급사고력 UP!’이라는 강좌와 함께 ‘통섭형 인재육성을 위한 창의성 신장 프로젝트-연구논문 쓰기’ 강좌 등 융합교육 프로그램도 인기다. 부산과학고 연구팀이 2년에 걸쳐 개발한 상황별 융합교육프로그램 ‘창의성 신장을 위한 C-STEAM 프로그램 체험’은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5가지 상황 속에서 융합교육 소재를 찾아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적성을 찾아 강좌를 선택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열의는 매우 높은 편이다. 박해원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강좌 이수 여부만 기재되기 때문에 별도 평가가 없지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한다. 자신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결석이 거의 없고 수업에 몰입도 잘한다. 교사들도 평소 하고 싶었던 수업을 기획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한편, 겨울방학에는 ‘고교 윈터스쿨’이 진행된다. ㉠

201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 서머스쿨' 강좌(30개)					
영역	강좌명	강의장소	시간	인원(명)	
공학	수소연료전지의 작동원리 탐구 및 제작실험	부산대	20	20	
공학	기술창의공학교실	부산남고 외	30	30	
과학	DNA 추출과 유전자증폭 실험	동의대	20	20	
과학	사체곤충과 법의생물학	고신대	21	20	
과학	카드뮴에 중독된 생쥐 정소세포의 전자현미경적 연구	고신대	20	20	
과학	영어로 진행되는 발광다이오드(LEDs) 기본지식과 실험	부산대	30	15	
과학	어메니티 과학실험을 통한 자유탐구교실	실험방(초량)	28	20	
과학	화끈 화끈 화학	부산일과학고	24	20	
과학	창의성 신장을 위한 C-STEAM 프로그램 체험	부산과학고 외	29	20	
사회과학	부산에 있는 중국과 일본 관련 유적지 탐방을 통한 올바른 동아시아 역사 알기	동의대 외	20	20	
사회과학	청소년을 위한 법과 의회 체험	고신대 외	21	20	
사회과학	미래를 여는 경제교실	경성대	21	35	
사회과학	우리 문화재를 소개하는 문화컨텐츠 만들기	덕문여고	30	24	
사회과학	역사 인물을 통한 역사의식의 이해와 리더십 연구	성지고	26	15~20	
수학	과학과 함께하는 수학	부산대	27	20	
수학	미리 보는 대학수학	부산대	24	20	
수학	이차곡선의 광학성질과 피타고라스 응계 연구	덕문여고	24	20	
예술	HD 단편영화 워크숍	동의대	30	16	
예술	이뜨리에 탐방 및 작가 인터뷰를 통한 예술문화 이해	낙동고	28	20	
예술	스통하는 미술	대연정보고 외	24	20	
예술	영화의 재해석을 통한 '시쓰기' 교실	브니엘고	20	20	
예술	작품체험과 디자인 실습을 통한 공간디자인 이해	부경대	20	20	
예술	창조적인 Media literacy (신문, SNS 활용교육)	고신대	28	20	
인문	창의적 생각을 발견하는 토론교실	부산대	30	26	
인문	토론을 통한 고급사고력 UP! UP!	개금고	24	20	
인문	통섭형 인재육성을 위한 창의성 신장 프로젝트-연구논문쓰기	부산대	25	28	
인문	시사논술, Debate를 만나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토론과 논술)	부산고	25	16	
인문	삶을 가꾸는 글쓰기교실	연제고	21	20	
인문	문학과 함께하는 사고와 치유의 글쓰기 여행	신라대	24	20	
진로	철학(글쓰기)과 예술(미술치료)을 통한 진정한 '나'의 발견과 회복	고신대	27	20	



보름달 뜬 한가위에 반달 모양 떡을 먹는 이유

한가위는 음력 8월 15일을 가리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다. ‘한가위’란 명칭은 ‘크다’는 뜻의 ‘한’과 ‘가배(嘉俳)’라는 놀이가 합쳐진 말이며, 한가배가 한가위로 변한 것이다. 그런데 한가위는 언제 생긴 풍속일까?

한 해 농사의 풍요를 나누는 ‘소놀이’

한가위의 유래에 대해서는 옛 문헌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유리왕이 6부를 절반으로 나누어 둘로 만들고, 두 왕녀를 시켜 각각 부내의 아녀자들을 거느리게 하였으며 패를 갈라 편을 만들었다. 가을(음력) 7월 16일로부터 날마다 새벽부터 큰 부의 뜰에 모여 길쌈(웃감을 만드는 일)대기를 하되 밤 10시경에 끝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8월 15일에 이르러 성적이 많고 적은 것을 판단하여, 진 편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서 이긴 편에게 사례한다. 이것을 가배(嘉俳)라고 하였다.’

한가위 무렵은 놀기 좋은 때임이 틀림없다. 농사일도 거의 끝나 한숨 돌릴 수 있고, 과일이 풍성하고 햇곡식을 먹을 수도 있으며, 날씨도 좋다. 어느 모로 보나 일 년 중 가장 좋은 때이므로 이 무렵이면 자연스레 여유로운 마음이 된다.

이 때문에 8월 한가위는 전국을 통틀어 가장 큰 명절로 여겨졌다. 얼마나 흥겹게 놀았는지 ‘1년 365일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내 한가위 때만 같아라’라고 하는 속담도

생겼다.

마을이 시끌벅적했던 놀이 중 대표적인 예로 소놀이가 있다. 농악대가 허리를 굽힌 두 사람에게 명석을 씌워 소로 만든 다음, 그해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집과 부잣집을 차례로 방문한다. 주인집에서는 잔칫상을 크게 차려서 이들을 대접하며 같이 한바탕 기분 좋게 즐긴다. 소놀이는 넉넉히 가진 자는 베풀고, 부족한 자는 행운의 기운을 받으려 한 풍속이라 할 수 있다.

반달 모양으로 빚는 ‘송편’의 참뜻

그런가 하면 송편도 우리 한가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속이다. 예쁘게 빚은 송편은 보기만 해도 절로 식욕이 돋아난다. 옛날에는 송편 모양이 예쁘면 커서 미인이 된다고 하여 소녀들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송편을 빚었다. 그런데 한가위 때 왜 송편을 먹을까?

우리 민족은 놀기 전에 조상에게 감사의 인사부터 먼저 했다. 한가위 2~3일 전에 조상 묘를 찾아가서 여름 내내 자란 잔디를 베고 잡초를 뽑았다. 한가위 당일 아침에는 햇곡식으로 빚은 송편을 비롯한 떡과 술 그리고 과일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다. 차례가 끝나면 어른들을 앞세우고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서 성묘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한가위에 먹는 송편에는 특별한 상징이 숨어 있으니, 송편(松-)은 솔잎을 깔고 찐 떡이기에 비롯된 이름이며, 생

김새는 반달 모양을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둥근 보름달 아래서 반달 모양의 떡을 먹는 데에는 ‘계속 발전’이라는 기원의 뜻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반달이 계속 커져 보름달이 되듯 좋은 일이 더욱 커지고 계속 이어지라는 바람에서 송편을 먹는 것이다. 조상신이 소원을 도와주리라는 기대도 한 채.

그렇다면 왜 보름달을 감안하여 송편을 만들었을까?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달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다. 달을 신처럼 받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어두운 밤을 가장 밝게 비춰주는 상징성이다. 둘째, 태양을 남성적인 신으로 여긴 것처럼 달을 여성적인 신으로 생각한 상징성이다. 여성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출산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달님도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것을 낳아 주리라고 믿어졌다. 특히 보름달은 뱃속에 아이를 가진 배부른 여인처럼 넉넉한 신으로 여겨졌다. 아이 낳을 때가 거의 다 됐다는 뜻의 ‘만삭’이란 말도 보름달과 관련되어 생겼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보름달을 망월(望月), 보름달이 뜬 날인 보름날을 망일(望日)이라고도 했다. ‘望(바랄 망)’ 자가 곧 ‘보름 망’으로 읽힌 것으로, 보름달에 대한 친근감이 보름달에 대한 신앙으로 발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한가위에 대한 마을 단위의 신앙적 풍습은 사실상 사라졌지만, 가족 친지가 모여 먹고 즐기며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하다. ②

한가위에 먹는 송편에는 특별한 상징이 숨어 있으니, 송편(松-)은 솔잎을 깔고 찐 떡이기에 비롯된 이름이며, 생김새는 반달 모양을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둥근 보름달 아래서 반달 모양의 떡을 먹는 데에는 ‘계속 발전’이라는 기원의 뜻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반달이 계속 커져 보름달이 되듯 좋은 일이 더욱 커지고 계속 이어지라는 바람에서 송편을 먹는 것이다.



힘들어 하는 제자 곁을 지켜주시던 이인길 선생님

광주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인길 원감선생님.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단칸방 살림에 지독하게 가난했던 유년 시절, 그 당시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의 취학 문제는 학부모들의 선택에 달려 있을 때였지만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부모님이 어려워진 가정 형편으로 유치원을 보낼 수 없다고 하자, 유아교육을 중요시 생각하셨던 선생님께서는 부모님을 대신해 조건 없이 선택 학비를 내주셨다. 유치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어려워진 가정형편은 좋아질 줄 몰랐다. 세상 모든 게 불만투성이었던 냉소적인 그때의 나에게 선생님은 “가난과 집안 형편은 너의 잘못이 아니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긍정적으로 노력하면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늘 진심으로 격려해주셨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 학비를 대신 내주시고 소풍을 갈 때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당신의 도시락을 대신 먹으라고 주셨던 정이 많은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을 보며 나는 교사의 꿈을 키웠다.

교사가 되었다는 내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의 일처럼 무척이나 좋아하셨던 이인길 선생님을 나는 지금도 찾아뵙고 한다. 얼마 전, 선생님의 권유로 병설유치원에 교육기부를 하게 되었다. 중등 교육 10년 차 접어드는 교직 경력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음에 기대 반 설렘 반도 잠시, 5~6세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어찌나 정신이 없던지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하느라 진땀을 빼며 예상 시간보다 10분을 초과해서 수업을 끝낼 수 있었다.

유치원 교사가 아닌 고등학교 교사를 선택한 것이 천만다행이라 말하는 나를 바라보며 선생님은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하는 힘이 있으며, 교육은 단지 그걸 도울 뿐이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숨 쉬고 배우려는 자세, 이것도 선생의 역할임을 알려 주며 늘 노력하는 교사가 되라고 당부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선생님은 현재, 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라 한다. 하루 빨리 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란다. 살아가면서 스승과의 좋은 인연이야말로 가장 큰 교육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②



이인길 원감

글_ 정수진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교사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위에 칭찬하고 싶은 아름다운
사례가 있으면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eduzine@hanmail.net



김윤기 연구사의
살리는 생활지도

Q

“작은 일에도 항상 대가를 원해요”

스스로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아이들은 늘 교사의 잔소리에 못 이겨 책상에 앉습니다. 당장 성적을 올려보자는 욕심에 '성적을 몇 점 올리면 ○○를 해 주겠다'고 공약한 적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공부뿐 아니라 학급의 일 하나하나에 항상 무언가 대가를 기대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벌써 9월이네요. 출근길 차창 밖으로 코스모스가 훑날리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지난 여름의 무더위를 씻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 짧았지만, 그래도 소중했던 방학도 지나가고 2학기가 시작되었네요. 방학동안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노라면 대견한 마음과 함께 무너진 학습 습관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죠. 이럴 때 자주 쓰는 방법이 '보상'인데요. 흔히 칭찬 스티커에서부터 피자 사주기, 영화 보여주기, 자유시간 주기 등 다양한 보상법을 사용하죠. 문제는 보상이 초기 학습동기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하여금 지속적인 행동을 하도록,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보상에 중독되어 보상이 없는 일에는 무관심해지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최근 칭찬은 그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여 칭찬을 강조하는데요, 적절한 칭찬은 아이의 성취동기를 북돋우고 자기효능감을 키워줘 아이에게 약이 되기도 하지만, 아이에게 독이 되는 칭찬도 있습니다. 피해야 하는 칭찬 방법 중 하나가 아이의 노력을 칭찬하기보다 아이의 타고난 능력이나 자질을 칭찬하는 겁니다. “엄마 닮아 머리가 좋은가보다. 또 100점이네. 수고했어”, “아빠 닮아 키도 크고 운동신경이 뛰어나네. 항상 달리는 일등이네. 잘했어”라는 칭찬은 아이의 성취동기를 키우지 못할 뿐 아니라 노력을 꺾기도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급을 경영하면서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격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칭찬스티커나 피자 같은 음식물을 내걸기도 하죠. 하지만, 피자와 같은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로 발전하기 위한 전 단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의 행동을 격려하고 통제하기 위한 초기단계로서 외적 동기가 되지만, 자칫 외적 동기에 길들여지면 내적 동기가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상에 중독되면 보상이 없으면 동기가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한 보상에도 갈수록 무감각해져 더 강한 보상을 원하게 됩니다. 또 **‘크레스피효과’**처럼 강한 보상에서 약한 보상으로 변하면 아이들의 동기는 급격하게 줄어들기도 하죠.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툼 소녀의 모험』에서 “부모님이 시킨 담장 페인트칠을 친구들 앞에서 즐거운 일인 양 말하여, 결국 친구들에게 1펜스씩 받고 페인트칠을 하도록 해줍니다.” 만약 톰이 친구들로 하여금 페인트칠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1펜스씩 주고 했을까요? 선생님. 톰이 친구들에게 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즐겁고 재미있다는 인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톰이 친구들로 하여금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 땀 흘리며 일할 수 있게 만든 것처럼 힘든 학급일이나, 학습도 스스로 참여하게끔 만드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 아닐까요. ^^ 우리 아이들은 길가의 코스모스 같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선생님 말 한마디에 따라 위인이 될 수도 있고, 평생 우리 사회를 원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파이팅입니다. ②

〈생활 속 교육심리〉
코너에서 자세히
소개해 놓았습니다.

대가에 따라 행동이 변하는 현상, 크레스피 효과

낮은 보상에서 높은 보상으로 변하는 것은 수행을 촉진시키지만 높은 보상에서 낮은 보상으로 변하는 것은 수행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이처럼 보상의 정도에 따라 수행이 급격히 변하는 현상을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크레스피 효과'라고 한다.

2008 베이징올림픽. 다른 구기 종목처럼 국가대표 야구선수들도 중국으로 날아갔다. 베이징에서 열린 올림픽 야구시합에는 프로야구의 본고장 미국을 비롯하여 쿠바, 일본, 대만, 캐나다, 네덜란드, 중국 등 우리보다 야구 역사도 깊고 선수층도 두터운 나라들이 대거 참가했다.

전원 프로야구 선수로 구성된 국가대표들은 가슴에 붙인 태극마크를 자랑스러워하며 최선을 다했고 기대와 달리(?) 한국은 9전 전승으로 우승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자 축구에서 월드컵 우승마냥 전 국민은 기뻐했고, 야구에 문외한인 여성들까지 야구 이야기로 화제를 삼았다. 그 여세를 몰아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 야구는 우승을 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다. 이때 일부에선 우승의 동력을 '병역 면제'라는 보상 때문이라고 성과를 폄하하기도 했다. 대부분이 프로인 선수들에게, 특히 젊은 시절 한때밖에 운동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병역면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보상이기에 죽기 살기로 뛰었고 결국 우승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빛나는 성과를 저런 식으로 깎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불편한 마음에 그 주장을 무시했다.

그리고 2013년, 다시 국가 간 대항인 월드클래식베이스볼(WBC) 대회가 열렸고, 기대와 달리 결과는 예선탈락이었다. 선수구성이 잘못되었다는, 감독이 작전을 잘못 짰다느니, 경기 운영방식이 잘못되었고 심판이 편파적이었기 때문이라느니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그리고 또 일부에

선 이런 주장이 나왔다. 이번 대회엔 '병역면제'와 같은 보상이 없는데, 어떻게 선수들에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고?

칭찬의 효과는 어린아이에게 더 크다

어떤 일을 수행하게 만드는 보상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경제적 보상과 정신적 보상, 면책적 보상, 언어적 보상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보상방법으로 경제적 보상을 들 수 있다. 이는 상금이나 상품 등과 같은 물질적 보상에 다름 아니며, 대체로 금액이나 물량이 많을수록 더 강한 동기를 부여받는다. 특히 프로축구와 같은 경기에서 꼭 이겨야 하는 중요한 시합의 경우 구단에서 승리수당을 걸면 승률이 올라가는 것도 같은 이치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보상과 대비된다. 이에 비해 정신적 보상은 개인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방식이다. 자존감이 강하고 내적동기가 강한 사람



일수록 정신적 보상을 소중하게 여긴다. 또 정신적 보상은 외부 타인에 의한 정신적 보상과 스스로에 의한 정신적 보상으로 나누어진다. 타인의 인정과 같은 것이 외부에 의한 정신적 보상이라면, 자신에 대한 만족은 스스로에 의한 정신적 보상이다. 면책적 보상이란, 책임이나 역할을 면제해주는 보상방식으로 병역의무나 죄를 면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칭찬과 같은 언어적 보상의 경우 아이에서 성인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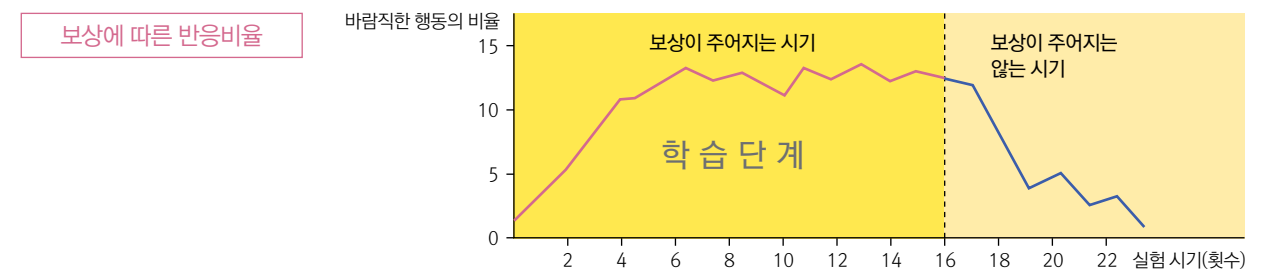
큰 보상 이후에 작은 보상을 주면 효과가 줄어든다

스스로에 의한 정신적 보상이 아니라면, 크레스피 효과처럼 작은 보상에서 큰 보상으로 나아갈 때 지속적으로 행동을 강화하여 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큰 보상을 맞본 다음에 작은 보상을 주거나, 보상을 끊을 경우는 급격하게 행동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보상으로 강화된 행동은 보상이 끊어지거나 약화될 때 행동의 비율이 무섭게 줄거나 사라진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현상을 '소거'라

고 하였다.

그 외에도 보상은 결과에 대한 보상과 과정에 대한 보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책을 몇 권 읽었는지에 대해 보상한다면 이는 결과에 대한 보상이다. 이럴 경우 자칫 아이들은 책 권수를 늘리는데 주력해서 얇은 책만 읽거나, 건성 건성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이에 비해 과정에 대한 보상은 책 읽는 태도를 칭찬(보상)하거나, 어떤 책을 읽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상하기에 결과적 보상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보상은 내적 동기에 의한 보상이다. 공자도 학문방법을 묻는 제자 안연에게 내적 성취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공부를 위인지학(爲人之學)이라 한다면, 자신의 내적 만족을 위해 하는 공부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이다. 공자는 제자에게 위기지학을 강조한 것이다. 그 후 많은 후학들이 위기지학을 학문의 목적으로 삼기 시작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잣대나 평가, 보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동기와 목적을 위해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야말로 최상의 보상이라 할 수 있다. ②



〈참고〉.....

- 『내 아이를 망치는 위험한 칭찬, 정윤경·김윤정 지음, 담소.
- 『아이를 크게 키우는 칭찬하는 법 아담치는 법』, 토시미 나카미 지음, 정유진 옮김, 눈과 마음.
- 『칭찬이 아이를 망친다』, 기시 히데미쓰 지음, 이지현 옮김, 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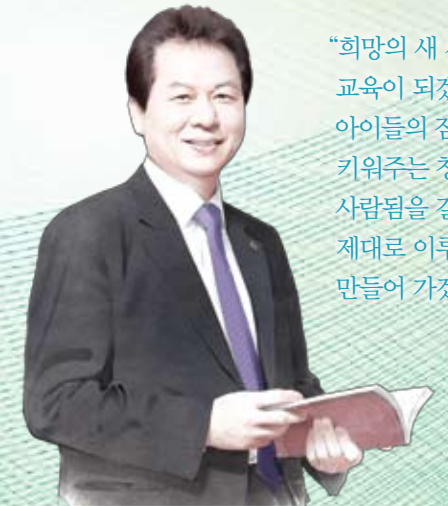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에도 교육 현안을 챙기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01** 8월 6일에는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새누리당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민생탐방은 대학을 통한 창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서남수 장관은 '대학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정책 과제'란 주제로 자유토론회도 가졌다. **02** 지난 8일에는 미래 중소기업을 이끌어갈 '희망사다리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사업인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517명의 장학생 중 전국 104개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대표자 100여 명에게 장관 명의로 장학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03**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8월 8일). **04** 12일에는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역사교육 강화방안(안)을 발표했다. 서남수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체험위주의 역사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역사교육 강화방안에는 체험중심 역사교육뿐 아니라 △교원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 △역사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학술지원 확대 및 역사왜곡 대응 강화 △역사교육 지원 체제 구축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05** 지난 13일에는 향후 고등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공청회가 한양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3회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됐으며, 서 장관은 공청회에서 대학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종합발전 방안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 △연구역량 강화 △대학교육 혁신 등 네 가지 영역에 총 13개의 정책과제가 담겨있다. **06** 19일에는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교육 분야 협력과 한국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07**

서남수 장관의

행복한 교육이야기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키워주는 창의교육, 사람됨을 길러주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공교육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남수 장관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sseomoe>



학부모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획 II

학교행사도 개.성.시.대.



- 연습 없는 운동회, 구경꾼 없는 운동회
- 운동장 '블록' 안에서 학급응집력 키운다
-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독서활동' 주목!
- 학부모설명회, 소통을 위한 또 하나의 장
- 새로운 발상이 창의적인 학교문화 만든다

톡톡 튀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교육공동체와 소통을 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고 있다. 보여주기식 운동회를 벗어나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 등 모두가 하나가 되는 구경꾼이 없는 운동회를 주최하는 학교, 일회성 독서행사를 지양하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책임기를 통해 느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심세한 배려가 있는 독서활동도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정보를 제공하던 학부모설명회는 학부모와 소통하고 축제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창의적인 행사로 탈바꿈하고 있다. 개성 넘치는 학교행사를 들여다봤다.

연습 없는 운동회, 구경꾼 없는 운동회

단체무용 없애고 전통문화 체험으로... 개인달리기 참여자 전원에게 1등상 부여

글 ! 박현선 대구금포초 교사

매년 운동회가 가까워지면 교사와 학생들은 힘들어진다. 전체적인 운동회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학년별 혹은 학급별로 연습이 시작된다. 교사와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종목은 무용이다.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동떨어진 무용발표 계획을 세워 학생들을 연습시킨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통일된 동작을 요구하게 되고 학생들은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보여주기 위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다. 단체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운동기능의 향상보다는 질서라는 미명 하에 교사의 통제에 의한 군인들의 제식훈련과 같은 동작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불합리한 연습은 결국 '보여주기' 위한 운동회를 하기 때문이다.

운동회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청군과 백군으로 나눠 겨루기를 한다는 것이다. 청군과 백군이 경기를 함으로써 가장 가까운 친구가 운동회 연습과정이나 운동회 당일, 적이 되어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 이때 상대를 속이거나 비난하거나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또 경기 결과에 따라 절반의 실패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바람직한 내면성장이나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보면 모두다 실패자가 되기 쉽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전교생 72명의 소담한 학교인 대구금포초(교장 신재진)는 기존의 관행을 벗고 색다른 운동회를 열었다. 전 교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려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과도한 연습은 없애고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내빈 모두가 주인이 되는 운동회, 경쟁하지 않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운동회를 열기로 했다.



01



02

- 01. 대구금포초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경쟁없이 함께 격려하고 칭찬하는 운동회를 열었다. 처음 해보는 '새끼 꼬기'가 쉽지 않은 학생들
- 02. 키질하기 체험
- 03. 학생들이 최신곡을 편집한 흥겨운 음악에 맞춰 준비체조를 하고 있다.

구경꾼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운동회

우선,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야기하기 쉬운 사전 연습을 없애기 위해 무용이나 단체 경기는 하지 않는 대신 교육과정에 포함된 종목을 선정했다. 연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 퇴장, 줄서기 등의 연습을 하지 않고 기능을 익힐 수 있는 종목(굴렁쇠 굴리기, 긴줄넘기 등)을 선택했다. 또 학교 중간놀이 시간에 많이 하는 풋살, 피구이외에도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게지기, 새끼 꼬기, 키질하기 등도 종목에 포함시켰다.

금포초 운동회가 열리던 날. 학생, 학부모, 내빈의 위치를 따로 정하지 않고, 그늘이 있는 풀밭에 의자를 배치하여 학생, 학부모, 내빈, 성인문해학교(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학교) 학생, 지역주민들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지루한 개회식을 탈피하기 위해 대화사, 격려사, 축사 등은 하지 않았다.

이날 신재진 교장선생님은 운동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향해 “모두가 함께 참여하자.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야유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자.”고 당부하였다. 이날 아이들이 추천한 최신곡을 편집한 흥겨운 음악에 맞춰 참가한 모든 분들이 자유투춤 준비체조를 했다. 준비체조 후에 바로 개인 달리기 경기장으로 이동하였다.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입장하고 줄을 맞춰 선생님의 손짓에 맞춰 열을 다듬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자유로움 속에서 나름의 질서를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금포초 운동회는 구경꾼 없이 모두가 참여하였다. 전교생은 물론이고, 학부모, 내빈, 지역주민들도 민속놀이 경기장이나 전통문화 체험장으로 이동하여 함께 경기에 참여하였다. 이날 운동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교육감님, 교육장님도 민속놀이와 체험학습에 동참하였다.



03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야기하기 쉬운 사전 연습을 없애기 위해 무용이나 단체 경기는 하지 않는 대신 교육과정에 포함된 종목을 선정했다. 학교 중간놀이 시간에 많이 하는 풋살, 피구이외에도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게지기, 새끼 꼬기, 키질하기 등도 종목에 포함시켰다.

칭찬·격려하는 운동회, 모두가 승자되기

뿐만 아니라 개인달리기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1등을 주었다. 최선을 다한 모두가 일등인 것이다. 상품도 모두 똑같이 주었다. 이어진 학생들의 피구, 풋살 경기는 별도의 연습을 하지 않은 채 교과과정에 나오는 종목으로 평소 체육시간에 연습하던 대로 하였다. 특히 사전에 교사의 지시대로 팀을 나누지 않고 스스로 팀을 정하고 게임에 참여시켰다. 경기 중에 팀을 옮기는 것도 허용하였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경기를 관람하는 동시에 열띤 응원을 펼쳤다. 학생들의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반대로 학부모들이 경기에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쑥스러워 참여를 꺼리던 학부모들이 경기가 진행되자 점점 빠져들었다. 자녀들 사진 찍기에 바빴던 모습에서 말괄량이 소녀, 개구쟁이 소년으로 돌아가 운동장을 누볐다. 운동장엔 웃음꽃이 활짝 핀 얼굴들이 가득하였다.



04. 구경꾼이 없는 금포초 운동회, 학부모들이 줄넘기에 도전하고 있다.

‘민속놀이 한마당’ 프로그램도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자기의 기록을 측정하는 경기, 개인 경기, 팀별 경기, 세 팀으로 나누어 하는 경기 등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운동회를 마친 후에는 학부모들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뒷정리에 참여하였다. 동네 어르신들을 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받들고 소외된 가정의 아이들까지 내 자신처럼 보듬는 한 가족이 된 운동회였다. 6학년 최정화 교사는 “그동안 운동회만 되면 무용연습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연습을 하지 않아 여러모로 좋았다.”고 말했다. 김가은(6학년) 양은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지 않아 이상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았는데 너무 재미있었다.”고 말했으며, 유미숙 학부모는 “새로운 모습의 운동회를 경험하게 되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 덩달아 행복해졌다.”라고 덧붙였다. 운동회를 마치고 맥으로 돌아가는 할머니들께서는 일부러 교장선생님을 찾아와 몇 번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였다.

금포초의 운동회는 외톨이의 모습을 보인 학생은 한 명도 없이 모두가 열심히 즐겁게 참여하고 특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없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특별한 운동회였다. ②

운동장 ‘블록’ 안에서 학급응집력 키운다

글! 이순이 본지 기자



01

학년별로 12학급 규모인 성남여고(교장 이상숙)의 체육대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다. 전교생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 같은 체육대회가 가능한 이유는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나눠 활용하고, 전교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을 도입한 때문이다. 성남여고는 학년별, 학급별 대항 단체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운동장을 12블록으로 나눴다. 학생들은 각자 정해진 공간에서 학급별로 모여 경기를 펼친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큰 동작을 요구하는 종목보다는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릴레이 줄넘기, 협동 공튀기기, 서바이벌 팔씨름, 학급 닭싸움, 림보 등을 경기종목으로 선정했다. 릴레이 줄넘기의 경우, 긴 줄넘기 안에 주자 한 명씩 넘되 줄에 걸릴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줄넘기를 잘하는 한 명의 기록보다는 학급의 단결력이 크게 작용하는데, 35명의 학생들이 서로 화합하고 결속을 다지지 않고서는 좋은 기록을 내는 것도, 승부에서 이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오후에는 학년별 줄다리기, 학생 계주, 6인 7각 달리기, 8자

줄넘기 등의 결승전이 펼쳐진다. 오전 내내 35명이 땀뿜 뭉쳐

경기에 임했다면, 이번에는 학급 대표로 출전하는 학생들을 위해 열띤 응원전을 펼친다. 또한 우수한 기록이나, 우수한 반에는 도장을 주어지는데, 이 도장을 3개 이상 모은 반 학생들에게만 경품추첨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매 경기 진지하게 임하며, 또한 즐기면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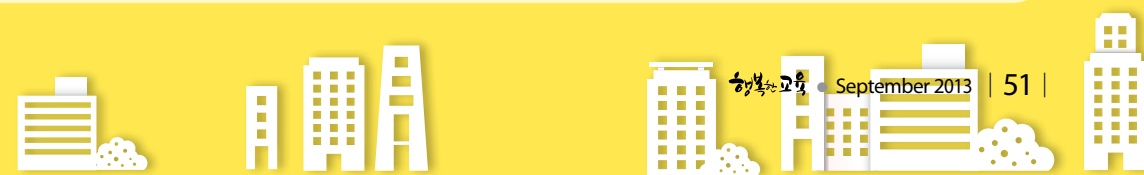
최상훈 체육부장은 “전교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만들자는 계획 하에 올해 5월 처음으로 새롭게 도입했다.”며 “종래에는 체육대회 이전에 예선전이 이뤄지고 당일에는 결승전 중심으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선전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할 만한 경기가 없었다. 올해 체육대회에서는 다른 해에 비해서 학급응집력이 돋보였다.”고 설명한다. ②



02

01. 성남여고 학생들이 정해진 블록 안에서 '협동 공튀기기' 경기에 열중하고 있다.

02. 학급 중심의 성남여고 체육대회는 무엇보다 학급응집력이 돋보인다.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독서활동’ 주목!

기획부터 평가까지 ‘학생 힘’으로

글 | 이순이 본지 기자

학교교육에서 책임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특색사업으로 정해 학생들에게 책임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중에서 서울노원고(교장 김재홍)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우리’가 제안하는 독서기행 떠나요”

노원고에도 많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서기행’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평범한 독서기행은 아니다. 매해 가을에 떠나는 독서기행, 지난해 신선한 경험을 했던 올 2학년생들은 다가올 독서기행이 마냥 기다려진다.

이 학교 독서기행의 첫 단추는 독서기행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만드는 기획안에서 출발한다. 희망학생들은 조별(3인)로 도서와 여행지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독서기행 기획안’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선정된 최우수 기획안은 그해 ‘독서기행’의 기본 골격이 된다. 지난해에는 조정래 작가의 <대장경>과 ‘해인사’를 연결해 독서기행을 제안했던 송은지, 김담이, 민주영 학생의 기획안이 채택되었다. 마흔 명의 학생들은 <대장경>을 함께 읽고,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해인사를 여행하며, 책 속에 숨어있다 튀어 나온듯한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할 수 있었다.

독서기행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송은지, 김담이, 민주영 학생의 총괄지도 아래, 함께 독서기행의 주제 목록을 정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각각 자료집 제작, 학교신문 『책과 우리』 제작, 촬영, 뒷정리(청소), 오락, 독서퀴즈, 자료집 퀴즈, 식당예약 및 간식, 인원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독서기행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이날 학생들은 독서기행이 진행되는 내내 역사해설가의 깊이 있는 설명을 들으며 살아있는 역사와 만날 수 있었다. 또 왕복 8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여행에도 불구하고 오락, 독서퀴즈 등을 함께하며 한 순간도 지루하지 않은 채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01

서울노원고 독서기행의 첫 단추는 독서기행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만드는 기획안에서 출발한다. 희망학생들은 조별(3인)로 도서와 여행지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독서기행 기획안’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선정된 최우수 기획안은 그해 ‘독서기행’의 기본 골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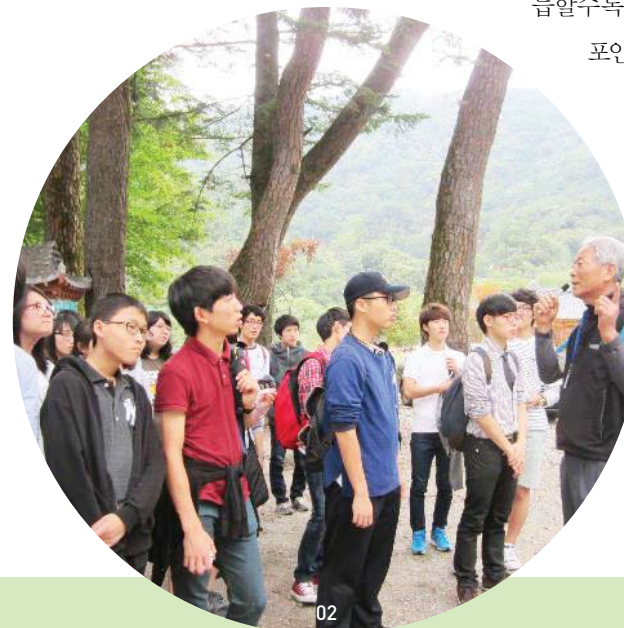
당시 이용희 학생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문이고, 그냥 계단이고, 그냥 현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역사해설가의 설명을 들은 후에는 하나하나 의미가 느껴졌다. 계단의 수는 108개이고, 문마다 이름이 있고, 기둥 수를 합치면 108개였다. 건물의 사소한 것까지 부여된 의미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문사회(독서)부 한은경 교사는 “행정이 필요한 버스계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학생들이 준비했다. 기획안을 만든 학생들이 총괄책임을 지고, 나머지 학생들과 의논해서 이동경로, 음식점, 장기자랑, 독서안내, 버스 안에서의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진행했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준비하다보니 버스에서만 8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 명도 졸지 않고 40명이 알찬 독서기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래가 직접 심사하는 ‘학생평가단’

또한 노원고는 ‘독서생각나누기대회’와 ‘독서글쓰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여느 학교의 독서토론대회나 글쓰기대회와 겉모습은 유사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진행되는 방법, 평가방법이 여느 학교와는 차이를 보인다. 독서생각나누기대회는 총4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그 속에서 회를 거듭할수록 상대방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얼마나 발전해 왔는가가 주요 평가 포인트다. 또 교사와 함께 학생들이 평가의 또 다른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그밖에도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남의 글을 많이 읽어보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듯, 노원고는 ‘학생평가단’을 선발해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의 글을 심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학생평가단’으로 선발하여, 또래의 글을 읽을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 심사위원의 자격을 주어 비평가의 눈으로 ‘글’을 보는 안목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 학생들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 한은경 교사는 “대회를 4년째 진행하는



02

01. 02. 서울노원고 ‘독서기행’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역할을 나눠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해인사를 둘러보는 학생들



02. 독서신문 만들기, 독서동아리 운영, 독서포트폴리오 작성법 등 알짜배기 정보가 넘치는 토요일도서관학교에서 학생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02

동안 학생들의 평가와 교사들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특히 상대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고는 「책과 우리」라는 학교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신문을 발행하는 학생들을 따로 두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다보니, 회를 거듭할수록 노하우가 쌓여 내용도 알차고 화려해 지지만, 「책과 우리」는 제반 사항이 여느 학교와는 다르다. 신문을 제작할 때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참여해 매번 ‘첫 호’를 내는 셈이다. 그렇다보니 자칫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폐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되지만, 이런 염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2010년 첫 시작은 무모해 보였지만, 학교신문에 대해 홍보하고, 만드는 방법을 강의했더니,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기획안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교사를 찾아왔다.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최근에는 마흔 하나의 「책과 우리」를 발행했다.

특히 노원고는 인문사회부 교사 4명이 돌아가며 매주 토요일 오전 도서관을 개방하고, 학생들에게 ‘토요일도서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평균적으로 40명의 학생들이 방문하고 있다. 평일 바쁜 일과로 책임기에 소홀한 학생들을 위해 토요일에 도서관을 개방한 것이다. “학교 도서관에 좋은 책이 많은데, 손이 가는 책만 읽더라고요. 구석구석에 있는 좋은 책들을 읽고 싶어서 선생님들에게 토요일 도서관 개방을 제안했어요.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면 함께하는 선생님들도 지쳤을 텐데, 학생들의 반응이 고무적이었어요.” 한은경 교사의 설명이다. ‘토요일도서관학교’에서는 독서생각나누기대회, 독서글쓰기대회 강좌를 열어 대회준비를 위한 요령을 설명하기도 하고, 독서신문 만들기, 독서동아리 연간 운영을 비롯해 독서포트폴리오를 잘 만드는 학생을 강사로 섭외해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알짜배기 정보가 넘치기 때문에 독서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김재홍 교장은 “일반고의 경우, 입시교육 때문에 책임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학교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져 토론, 논술 실력이 크게 향상되어 대학입학 수시전형에 자기소개서, 심층면접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학부모설명회, 소통을 위한 또 하나의 장

기타 치며 화기 애애 분위기로 설명회 진행... 맞벌이 부모 위해 밤 9시부터 교사와 상담

글 | 이순이 본지 기자



01

학교가 교육공동체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 행사를 주최하는 등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학부모들을 초청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소박하지만 특별한 행사들로 탈바꿈하고 있다.

학부모의 기타연주 화기 애애한 분위기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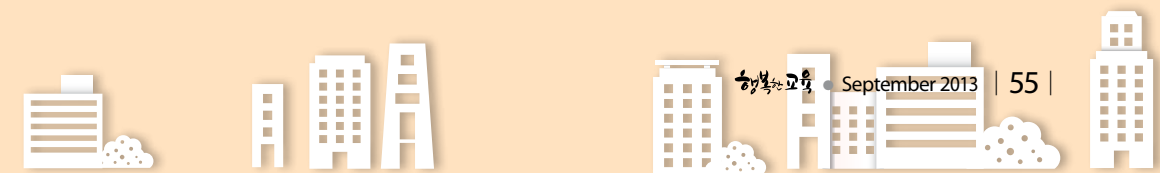
경기도 양서초(교장 홍태화)는 맞춤형 학부모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고 있다. 양서초는 교육활동에 대해 신입생과 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관심이 크게 다른 점에 착안하여 학부모설명회를 맞춤형으로 따로 진행하고 있다. 새로 입학하는 학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신입생 학부모를 위해 입학시기보다 조금 이른 1월 중순에 설명회를 열고 신입생 입학 안내 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배부하고 학교교육과정 안내와 학교 홍보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반면, 재학생 학부모를 위한 설명회는 3월경에 개최, 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높여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통의 기회로 삼고 있다.

홍태화 교장은 “양서초에서 학부모설명회란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한 만큼 학교를 사랑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그는 “일방적인 전달 위주의 학교교육 설명회보다는 참여와 소통, 나눔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가 연계된 효과적인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더불어,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



02

01. 02. 경기 양서초의 학부모설명회는 교육공동체의 주체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는 장이다. 한 학부모의 기타연주에 맞춰 함께 노래를 부르며 화기 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학교가 교육공동체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 행사를 주최하는 등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학부모들을 초청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소박하지만 특별한 행사들로 탈바꿈하고 있다.

여 건전한 학교문화를 확산시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양서초는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한 학기 혹은, 일 년간의 교육활동이 계획한대로 잘 운영되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데 특히 잘 이뤄지지 않은 활동, 아쉬움이 남는 활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지난 7월에도 어김없이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지난 한 학기를 점검했다.

이날은 학부모 록밴드 회원의 기타연주를 시작으로 간담회의 막이 올랐다. 교육활동을 점검하는 날이기에 교사는 교사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분위기가 다소 경직될 수 있음에도 신나는 기타연주에 맞춰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노래 부르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간담회가 이어졌다. 평소 학부모와 교사 간의 탄탄한 신뢰가 있었기에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쓴소리는 다음해 교육활동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받아들였다. 간담회에서 건의된 학부모의 의견은 교직원 협의회를 거쳐 다음해 교육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양서초 학부모회장은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단편적으로 아이들을 통해 듣고 알게 된 것들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와 대화거리가 생겨 좋다.”고 말한다.

김기동 교사는 “또 하나의 교육활동 모니터링 창구의 역할과 수단으로 학교교육 발전과 교육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간혹 학부모의 의견이 교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때도 있지만, 학부모, 교사 모두 교육공동체의 한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장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맞벌이부모를 위한 야간 설명회·상담 진행

학부모와의 소통의 장을 학교가 아닌 학교 밖으로 옮긴 학교도 있다. 수원 명인초(교장 김학유)는 주말이면 학부모, 교사, 학교



03. 학부모와 역사유적지를 탐방하는 충북 삼성중 학생들

04. 충북 삼성중학교는 '자녀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학부모의 의견을 교육활동에 반영, '온세미로'라는 역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장이 함께 산에 오르며 교육활동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학부모 행사가 어머니들이 주축이라면, 이 행사는 아버지와 학생,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등반에 참여한다. 등산 중 자녀의 진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휴식시간에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알리는 학교장의 설명회가 진행되는 셈이다.

충북 음성의 삼성중학교(교장 윤태영)는 학교의 벽을 낮추고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를 운영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근이 공장지대여서 맞벌이가정이 많은 것을 감안해 시간을 오후로 늦췄다. 지난해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후 6시에 진행,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유명 강사를 초청, '자녀와의 대화법', '스마트 시대에 살아가는 법' 등의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학부모설명회에 참석해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한 강의를 들은 학부모들이 강의 내용에 크게 공감하면서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고, 삼성중은 '온세미로'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학부모와 자녀가 월1회 유적지 답사와 예절교육 등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광희 교감은 “우리 학교는 맞벌이 가정이 많고 조손가정의 아이들도 다수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호소해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학부모설명회를 빌어 부모교육을 진행했고, '온세미로' 동아리와 연계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부모교육과 진로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이날 '청소년 자녀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회도 함께 진행했다. 모든 행사가 끝난 밤 9시부터는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상담이 이어졌다. 평소 직장 때문에 학교행사 및 상담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학부모들은 선생님과 함께 자녀의 성적, 평소 수업태도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올바른 자녀교육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②



새로운 발상이 창의적인 학교문화 만든다

글 | 김봉규 학교문화프로젝트컨설팅 단장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일레로 장미의 경우도 진정 장미가 되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위한 태양이 있어야 하고, 비가 내려야 하며,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받을 토양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누군가가 “장미야!”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부름이 없는 장미는 의미가 아닌 ‘몸짓’에 불과하다. 성경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진리인 자신이 포도나무이며 우리들은 가지라고 했다. 비유의 핵심은 가지들이 반드시 나무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가지들이 상호 운명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하나의 가지가 이기적으로 양분을 독차지한다면 결국 자신도 파멸을 맞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창의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융합과 공존의 시대

다가올 제4물결의 미래는 융합과 공존의 시대이다. 제2물결의 근대는 획일적인 이분법의 사회였다. 정상과 비정상, 옳고 그름을 흑백논리로 나누었다. 그러한 사회는 질서와 통일, 안정을 가져오는 데 효율적이다. 하지만 수직적 구조로 인해 개인이나 소수자들에게는 규제와 억압의 부작용을 낳는다. 반면,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제3물결의 탈근대는 이분법의 독단에서 벗어나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수평적 구조의 긍정적 사회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지나치게 다양성을 중시하다 보면 맹목적 다양성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방종은 사회 내에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지금 세계는 수평과 수직의 장점만을 결합한 십자가형의 공존과 상생, 그리고 융합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융합적 패러다임이란 개인의 창의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율적 책임의식과 질서의식, 나아가 관계지향적 사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의식의 프레임이다.

사실 인간은 ‘사람(人) 사이(間)’, 즉, 관계의 존재이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유전자를 가



진 존재는 모두 사람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호흡을 하고 있어도 관계가 상실된 존재는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공자도 인간관계의 핵심을 인(仁)으로 보았다. ‘어질다는 것’은 그냥 온유하다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仁), 즉 사람(人) 둘(二)이 함께하는 공존의 법을 아는 덕이다. 아마도 2008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경제위기는 융합사회로의 이행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30년의 대공황을 훨씬 능가하는 심각한 경제위기 앞에 국제사회는 공조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역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노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아가 사회 각 계층들 역시 상호 상생 및 공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사회적 성공을 위한 최우선의 덕목 역시 스펙에서 관계지수(NQ: Network Quotient)와 의사소통능력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타인과 잘 어울리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학력의 독불장군보다 낫다는 것이다.

재치·의미 창출하는 학교행사는 국가 성장동력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문화선도사업 등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교육부의 다양한 프로젝트는 무엇보다 소통과 어울림이 공존하는, 창의적이며 동시에 의미 있는 학교문화를 지향해왔다. 그것은 사회의 그늘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공존과 상생지향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었다. 구체적으로 명상이나 농촌체험, 스포츠 행사나 축제 등을 통해 학생, 가족,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울림을 도모하고, 캠프파이어나 촛불의식 등의 체험 활동을 기반으로 ‘더불어 삶’의 지혜를 배우며, 다양한 봉사동아리나 힐링 및 행복지향의 자치활동 등을 통해 상생을 실천하고, 무엇보다 독서, 토론 그리고 시나 글쓰기활동 등을 통해 공존 지향적 의식을 함양해나가는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의 창의적 변화를 통해 기쁨과 의미 그리고 소



01.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학교문화를 낳는다. 한 고등학교 신발장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신발 정렬 모양새가 재미있다.

02. 김포신평초 학생들의 신나는 교육활동



학생들이 자율적 주체로서, 소통과 공존 그리고 상생의 의식을 지닌 미래지향적 행복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다방면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다. 이제 방향을 바로 잡았으니 마지막 남은 일은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이다.

통과 공존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일례로 학부모설명회의 경우도 과거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진행에서 벗어나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학부모의 참여도를 높이고, 주말 등산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 교사와 부모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독서와 같은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창의성을 결여 생산적인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책을 선별하여 읽고 생각을 나누며, 또 결과물을 상호 평가해주는 방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의사소통능력 향상, 관계개선,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발표능력 향상까지 얻고 있다. 운동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를 개최할 경우도 기존의 형식적 틀을 수정한 성공적 운영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모두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경쟁의식에 물들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 자체가 주는 가치를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소통과 어울림이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생산적 학교문화의 형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개인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10대의 기대수명이 최소 100세가 될 것임을 고려할 때, 10대에게 필요한 경쟁력은 융합적 사고능력, 관계 및 공존능력,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소능력일 것이다. 대부분의 일이 컴퓨터와 로봇에 의해 처리될 미래에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 가치 있는 자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창의성과 설득력, 재미와 의미를 창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의 개발은 미래융합사회에 국가 차원의 성장동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03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전국 초·중·고에서는 지금도 탁월하며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행사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보다 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단순히 행사나 프로그램의 종류를 늘리는 것이 아닐 것이다. 투자된 예산이나, 사용된 기자재의 질, 또는 교사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아닐 것이다. 미래지향적 학교문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전시행정이나 미봉책만을 찾는 형식주의, 성과주의 그리고 편의주의는 넘어서야 할 것이다. 또한 융합과 공존, 그리고 상생을 가져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개발되었을 때 실천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출발하지 않는 자는 도착할 수 없다. 질문을 하는 자만이 자신이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의식과 환경이 필요하다. 나아가 당위적인 이야기이지만 교육담당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요구된다. 교장 선생님의 헌신적 열정, 교사들의 자발적 동참, 부모의 지혜로운 사랑,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향한 지역사회의 지속적 관심이 상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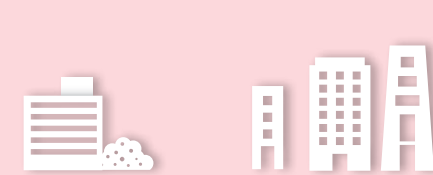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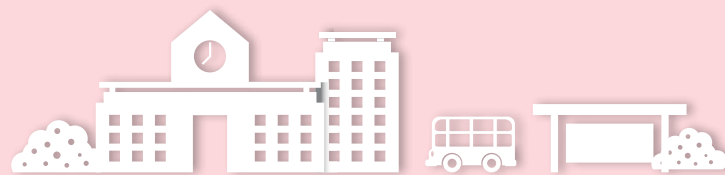
학교문화는 일련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맹목적 다양성을 넘어 합리적 다양성의 길에 들어섰고, 독단이 아닌 질서와 통일의식을 배워나가고 있다. 단순한 자유가 아닌 자발적 책임의식이 동반된 진정한 자율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율적 주체로서, 소통과 공존 그리고 상생의 의식을 지닌 미래지향적 행복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다방면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다. 이제 방향을 바로 잡았으니 마지막 남은 일은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이다. 늘 그렇듯이 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지만, 빛을 등지고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기 때문이다. ②



04

03. 쉬는 시간, 교정을 거닐며 수다를 즐기고 있는 광주상일여고 학생들

04.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경쟁력은 관계 및 공존능력이다. 친구들과 방금 넣은 계란을 보며 즐거워하는 강원 아이초 학생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왜’를 가르쳐야 역사공부가 즐거워진다

행복한 역사교육은 뭘까.

국사편찬위원회 이태진 위원장에게 ‘행복역사교육’을 물었다. 그는 좋은 역사책에서 재미를 느끼고 이를 발판으로 민족사의 긍지를 아는 것, 나아가 미래발전의 자신감을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역사교육이 아니겠느냐고 답한다. 이어 역사에서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려면 무엇보다 ‘왜(why)’를 가르치는 교육이 실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01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중국의 동북공정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일본의 독도 망언이 이어질 때마다 우리의 역사교육은 국방의 의무만큼이나 절실한 과제로 다가온다. 이러한 때에 역사학계의 거목으로서 일생을 한국사 정립과 긍정사관 확립에 투신해 온 국사편찬위원회 이태진(71) 위원장은 무엇보다 ‘재미있는 역사교육’ 실천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01. 이태진 위원장은 역사교육을 통해 민족사의 긍지를 잃으로써 미래발전의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사교과서가 연도와 사건 나열식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오히려 책을 들여다볼수록 학생들이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하는 지루한 교과라고 인식하기 쉬워요. 큰 사건 이면에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교과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재미있는 역사교과서 필요

이태진 위원장은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그동안 ‘편향성’ 문제만 주로 부각됐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왜’가 서술되어 있지 않은 점이라고 진단한다. 이번 8월 말로 검정이 완료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역사부도) 역시 편향성 시비를 벗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왜’가 서술되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스토리텔링 형태의 역사교과서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역사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너무 많다면 분량상한제를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교과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합니다. 역사교육에 있어서 ‘교육’과 ‘연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연구 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교육하면 안 되지요. 사실을 가르치되, 학생들이 부담감 없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울 내용을 줄이는 한편, 사실 나열에서 맥락이 살아있는 이야기형태로 전달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태진 위원장은 역사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수학교과에서 공식을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 지식을 토대로 ‘역사적 사고’를 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진짜 목표라고 말한다. 다만, 초·중·고교 단계에서는 역사적 사고의 토대가 될 역사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대학 강의를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역사에 대한 자긍심 바탕으로 국제적 이해를

고종·대한제국 연구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인 이 위원장은 우리 역사를 열등하게 보는 ‘자학사관’을 깨고 ‘긍정사관’을 심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대한제국의 고종이 무능해서 나라를 잃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사실 고종은 개명군주였다는 게 그의 연구 결과다. 예컨대 서울시청 앞에 여섯 방향으로 도로가 빠져나가기도록 방사성 도로체계를 갖춘 것이나 도쿄보다 3년이나 먼저 전차를 도입한 것 등 우리 역사에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역사학습을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필수요건이고 또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역사 면면에 흐르는 평화공존의 정신을 새롭게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문한다. 소통이 잘 되는 근대적 도시로 서울을 키우고자 한 고종은 결코 후진적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태진 위원장은 중국이나 일본의 도발로부터 우리 역사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제적 안목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한다.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자세로 보면, 일본이 왜 그토록 독도에 집착하는지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를 넘어서서 우리가 일본인의 역사관을 알아야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일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통해 아시아에서 근대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메이지유신의 꽃이 바로 러일전쟁의 승리에요. 러시아 발틱 함대를 몰락시킨 곳이 지금의 독도 부근이었고 당시 일본은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독도를 편입시켰던 것입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일본인들의 최대·최고 자랑인 메이지유신을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역사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인의 민주공화제 형성 과정 책으로 담을 것

한평생 역사와 함께 살아온 이태진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역사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몰두할 계획이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서구의 것을 들여온 것으로만 알고 있으나, 사실은 영·정조시대부터 탕평군주로서 유교정치의 현대화를 꾀하면서 ‘민국(民國 백성을 위한 정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등 민주주의의 씨앗이 잉태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인 민주공화제의 형성』(가제)이라는 책을



02

통해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공화(共和)제가 만들어진 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우리는 급속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 교육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역사학습을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필수요건이고 또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역사 면면에 흐르는 평화공존의 정신을 새롭게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른 재주가 없어서’ 역사학자로서 외길을 걸었다는 이태진 위원장에게 역사란 무엇이라고 물었다. 그는 “나의 알파와 오메가다.”는 답을 돌려주었다. 02

02. 학생들에게 ‘왜’를 가르쳐야 즐거운 역사공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이태진 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는 해방 직후인 1946년 창설된 이후 사료의 수집 편찬과 국사의 보급을 주관하고 있다.

국편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방대한 한국사관련 사료를 수집·편찬하여 학계에 기여해온 우리나라 유일의 국립 사료편찬 기관이자 한국사연구기관이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등 한국사관련 중요 사료와 한국사 연구 성과를 연구자와 국민에게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한국사관련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내 19개 기관을 연결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사관련 정보를 연구자와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정보의 총보산’이기도 하다. 한편, 국편은 중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사전문과정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국사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문서 해독능력자를 양성하기 위해 한문초서과정과 일본어초서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역사 바로알기 대회’도 국편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우리 민족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변국들의 역사왜곡과 역사침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과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알고 소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2년 국가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의 자격시험(2급 이상), 2013년 교원임용시험의 자격시험(3급 이상)으로 활용됨에 따라 응시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국편은 문제의 균질성 확보와 난이도 조절, 공정한 기회 부여, 시험 문제 및 관리상의 시비 차단 등에도 유의하여 시험을



03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격시험이라는 외부 요구와 한국사에 대한 흥미 유발이라는 내부 요구를 적절히 조절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편은 2008년 역사교과서책임감수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부터는 역사교과서 검정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다. 2012년에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 완료했으며 올 8월 30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 완료함으로써 내년 3월부터 국편이 검정한 새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쓰일 예정이다.

03. 우리나라 역사정보의 총보산인 국사편찬위원회 전경

04. 국사편찬위원회 65년사



04

진로나침반

글 | 허은영 서울등원중학교 수석교사(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진로사이버상담교사)

청소년들의 적성·흥미 찾아주려면...



청소년 진로 지도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적성과 흥미, 가치관 등 자신의 진로 영역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신의 특성 이해는 진로 목표 설정을 위한 첫 단추이기도 하고, 자아존중감의 바탕이기도 하다.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청소년은 학습 동기도 높아지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도 좋아진다. 그러면 청소년들의 적성, 흥미, 가치관을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울러 적성과 흥미 탐색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고민과 지도방법을 함께 제시한다.

적성·흥미 찾기의 첫걸음, 심리검사

청소년들의 적성·흥미와 같은 진로심리 특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심리검사이다.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무료로 쓸 수 있는 대표적 인터넷 심리검사는 워크넷과 커리어넷인데 자세한 경로는 아래와 같다.

워크넷 www.work.go.kr : 진로심리검사-심리검사-중고등학생 심리검사-직업정성검사·직업흥미검사

커리어넷 www.career.go.kr : 직업·진로-직업심리검사-청소년용 심리검사-직업흥미검사·적성검사(고등/중)

01.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자기 이해 도구는 직업카드이다.



01

이렇게 후회와 손해를 불러오는데 하물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정보 수집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직업에서도 선택 전에 구체적으로 하는 일, 필요한 적성과 흥미, 준비 방법(학력과 자격증), 연봉과 전망, 관련학과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심리검사를 한 후 청소년들의 고민 중의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심리검사 결과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 직업을 포기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심리검사는 엄격하고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개발된 것이지만 진로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비록 심리검사 결과에 나오지는 않았어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이다. 단,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적성과 흥미에 대한 정보를 찾아봄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특성에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거나 더 나아가 심리검사 결과에 나온 직업도 관심 직업과 함께 대안에 포함해 관심을 가져보게 하는 것이 좋다.

몸으로 느끼며 탐색하는 직업체험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몸으로 체험하며 실제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업체험이다. 직업체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먼저 직접 일터를 방문하여 직업인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일터체험이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일터를 발굴하여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을, 원하는 시기에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때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모나 친지의 일터를 찾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 직업인이 일하는 일터를 가보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직업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여러 직업인들이 하는 주요 활동을 체험하는 것 또한 어떤



02. 직업체험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몸으로 탐색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진로교육이다.
(사진은 한국잡월드 직업체험 모습)

직업이 자신에게 어울리는지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 활동은 짧은 시간에 여러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마침 한 학년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직업체험 시설 '한국잡월드'가 경기도 분당에 문을 열었다. 인터넷으로 사전에 예약해야 하는데(1년 전부터 가능)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은 일찌감치 마감된다.

직업체험 역시 사후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직업체험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몸으로 탐색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진로교육인 것은 맞지만 풍부한 직업정보를 갖추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험을 갔다 와서 그 직업에 흥미가 생겼다면 인터넷으로 직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찾아보는 활동을 해보게 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자기 이해의 도구, 직업카드

심리검사가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객관적으로 탐색

할 수 있는 도구라는 장점이 있어 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자기 이해 도구는 직업카드이다. 직업카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을 뽑아 직업명과 직업 정보(하는 일, 준비 방법, 관련학과, 필요한 적성과 흥미 등)를 카드 형태에 담은 진로교육 도구이다. 현재 도서를 구입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업카드'로 검색하면 몇 가지 카드가 판매되고 있다.

직업카드 분류활동을 할 때에는 먼저 본 활동을 하기 전에 청소년들이 직업카드에 나오는 직업 정보에 충분히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를 갖추고 나서 관심 직업을 선택할 때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카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자료는 아래에서 만날 수 있다.

사이버진로교육센터 <http://cyber-edu.keis.or.kr> :
자료마당-진로지도 콘텐츠-27번 청소년용 직업카드
및 활용매뉴얼

직업카드분류활동은 ① '좋아하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 '결정할 수 없는 직업'의 3개 군으로 분류하기. ② 가장 좋아하는 직업카드 3개를 순서대로 골라 그 직업명과 좋아하는 이유를 적어보기. ③ 가장 싫어하는 직업카드 3개를 순서대로 골라 그 직업명과 좋아하는 이유를 적어보기. ④ 소감 및 추가 정보 탐색으로 진행된다.

적성과 흥미가 다를 때는...

끝으로 적성과 흥미 탐색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고민 두 가지를 알아보자.

먼저, 적성과 흥미가 두드러지지 않아(“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고민하는 경우이다. 이때

직업 선택에 있어 적성과 흥미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릴 적부터 매우 뚜렷해서 적성과 흥미만을 가지고 아무 고민 없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중학교 시절부터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뚜렷해서 그 직업만을 준비한 후 현재의 직업을 갖게 된 사람은 우리 주변에 거의 없다는 것이다. 꼭 하고 싶은 직업을 찾았다 해도 그것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 등에 대한 오랜 시간의 고민과 탐색 끝에 중학교 시절보다는 훨씬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또 더 많은 직업인들은 그 직업이 너무나 하고 싶기보다는 이 직업, 저 직업을 비교하면서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자신이 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을 통해 살펴볼 때 조금이나마 장점이 많은 것 같다는 마음으로 타협하며 직업을 결정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적성과 흥미가 일치하지 않아 갈등하는 경우가 있다. 적성과 흥미가 갈등할 때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적성이라 함은 잘할 가능성이 있는 일이고 흥미는 좋아하는 일이므로 만약 잘하는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적성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흥미를 추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적성은 타고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적성에 맞는 일은 직업으로, 흥미에 맞는 일은 취미로 삼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준다. 진로상담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자세는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며 결정을 대신해주는 것이다. 청소년이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 정보 등을 풍부하게 제시해주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하도록 하여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⑦

김유리 하우스매니저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장의 살림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더불어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뮤지컬이나 콘서트,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이 예전보다 많이 늘고 있다. 이런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진행과 관련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바로 하우스매니저(House Manager)다. 국내에 이 직업이 생긴 지 10년도 채 안됐지만 각종 공연장이 늘면서 하우스매니저는 차세대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연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공연장의 살림꾼이 하우스매니저라 할 수 있습니다. 티켓 배부부터 공연장 안내, 뒷정리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살피는 사람들이지요.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이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해요.”

올해로 경력 8년 차의 김유리(31) 하우스매니저는 세종문화예술회관의 ‘살림꾼’이다. 3,022석에 달하는 대극장 공연을 총괄 진행하는 그녀는 “높은 수준의 관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하우스매니저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관리자로서 역량과 판단력 중요

하우스매니저의 하루는 오후 1시부터 시작이다. 보통 공연이 저녁 7~8시에 열리기 때문에 공연 진행을 위한 탄력근무제를 택하기 때문.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우스매니저는 바쁘게 움직이며 공연 진행 사항을 확인한다. 스텝회의를 통해 공연 전·후의 정보를 공연단체와 합의하고, 리허설에 참관해 진행시 유의사항 등을 체크한다. 입장권·객석 관리를 비롯해 관객안내원, 매표소요원 등 서비스 교육 계획을 짜고 포지션을 정하는 것도 하우스매니저의 일이다.

“하루에 안내원만 50명을 지도합니다. 인력풀은 700명 가까이 되는데 공연 전에 포지션을 정해주고 동선 짜는 일을 전부 끝내야 해요. 이들의 급여 관리나 비품관리를 비



01. 김유리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우스매니저에 도전해 볼만하다고 말한다.

“공연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공연장의 살림꾼이 하우스매니저라 할 수 있습니다. 티켓 배부부터 공연장 안내, 뒷정리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살피는 사람들이지요.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이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해요.”

롯해 채용까지 모두 하우스매니저의 몫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역량과 리더십이 필요하지요.”

공연을 진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판단력도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다. 김유리 하우스매니저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각종 공연에는 연출가, 예술가, 무대감독, 후원기업, 방송사 등이 얹혀 있는데 이들의 요구 조건을 판단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청룡영화제, 미스코리아 대회 등 생방송으로 공연이 중계될 때는 포토라인이나 카메라 위치 등이 관객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동선을 짜고 요구 조건을 협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뮤지컬 동선을 확인하는 등 각 무대 연출에 대한 공부도 병행해야 한다.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는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안내원 조화를 통해 관객의 특성과 단체 티켓 여부, 입장 연령 등을 재차 당부하고 고객 불만 응대 및 인사 연습 등 서비스 교육을 직접 담당한다. 특히나 노약자·장애인 등 안내가 필요한 경우나 미취학 아동을 위한 공연의 경우에는 안전과 객석 안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공연이 시작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공연 시작에 늦은 관객을 안내하고, 불만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며 관객이 안전하게 퇴실을 할 때까지 하우스매니저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객석을 점검하며 분실물을 확인하고, 응급사고나 공연 후 보고서까지 작성하고 나서야 퇴근할 수 있다.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가 근무시간이에요. 주말 공연이 있는 날에는 평일에 쉬어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거나 저녁시간을 보내는 건 포기해야 하지요.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은 공연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일을 해야 하는데, 12월에는 단 이틀 밖에 쉬지 못했어요.”

저녁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근무 여건과 공연 진행을 맡기 때문에 본인이 공연을 볼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접할 수 있어 ‘공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권하고 싶은 직업이라고 꼽는다.

대학 전공과 학력 제한 없어… 외국어 공부 도움

하우스매니저가 되기 위한 전공이나 학력 제한은 없다. 다만, 대학 진학 시 공연 관련 학과나 서비스 관련 학과가 유리할 수 있으며, 서비스직에 종사한 경험이 도움이 된다. 특히나 최근에는 외국인 관람객과 해외 공연이 늘면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능력이 필요하게 됐다.

또한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예쁜 얼굴보다는 호감을 줄 수 있는 인상과 친절성, 적극성이 중요하며, 꼼꼼하면서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우스매니저로서의 자질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김유리 하우스매니저는 “고객 응대를 해야 하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말을 잘 하는 것도 유리하다.”며 “스피치 훈련과 더불어 의전 등을 행할 때 필요한 테이블 매너 등을 익혀 두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연봉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초봉은 일반 사무직 초년생 연봉과 비슷한 편. 5~10년차 하우스매니저는 보통 연봉이 3,000만 원 정도 된다.

현재 전국 공공 및 민간기관을 포함해 40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연장이 있다. 하우스매니저는 대략 50~60명 정도. 최근에는 질 높은 관객서비스를 위해 1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하우스매니저를 뽑기 때문에 직업 전망은 밝은 편이다.

“앞으로 하우스매니저는 더욱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규모 공연장을 갖춘 곳 이외에는 보수가 높지 않고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직종이기 때문에 공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도전해 볼만합니다.” ②

브라질한국학교

한국-브라질 교육과정 동시 운영 온전한 한국인, 온전한 브라질인, 실력 있는 세계인을 기른다

‘삼바’, ‘축구’, ‘카니발’... 브라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중앙부에 길게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1억 9천 만 명 정도이지만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37배(851만km²)에 달하고 있고 광활한 면적과 철광석, 커피, 콩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식량 자원을 바탕으로 ‘기회의 땅’,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 등으로 불리며 남미 통합(남미국가연합, 남미공동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 대국이다.

카니발의 타오르는 정열에서부터 거대한 아마존에 이르기까지,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신비감을 주는 국가, 주요 도시에는 고층 건물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고, 도시에서 한 블록만 벗어나면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지는 야생과 열대 파라다이스가 공존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2014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최근 들어 세계의 이목이 한층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1959년 수교를 맺고 양국의 경제 협력 등 정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현재 우리의 중남미 제1위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 LG전자, 삼성전자, SK(정유), 현대자동차, POSCO, 두산 등 전자, 자동차, 제철 분야의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교민들은 약 5만 명이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교민의 80%가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3년 올해는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각종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현지 문화공연단(K-POP, 태권도) 파견, 한인단체 주관 각종 문화행사 등이 개최되어 한류열풍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민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민 사회에 한국인의 문화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브라질한국학교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브 장점 접목한 현지화 교육과정 운영

브라질한국학교는 맨주먹으로 이주 온 초기 이민자들이 각자의 사업에 성공하여 교육을 통해 동포 사회에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브라질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2세 교육에 뜻을 모아 모금한 성금 330만 달러와 한국정부의 300만 달러 지원으로 건립된 브라질 내 유일한 한국학교이다. 1998년 한국정부로부터 정규학교로 인가를 받아 1999년 3월 1일 정식으로 개교하여 오

늘에 이르고 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2004년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33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으나,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여 지금 현재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에 약 13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다.

설립 초기부터 교포 2세 자녀들의 브라질 정착에 중심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Colegio Polilogos(유치원~고등학교 과정) 과정과 한국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오전 7시 30분부터 브라질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12시50분부터 4시30분까지 한국교육과정이 운영되어 학생들은 두 가지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교과 중복이수, 교과목 이수 시간 수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 브라질과 한국교육과정에서 중복되는 공통 교과(수학, 과학, 체육, 영어)의 경

우 ‘공통교과이수 인정 교과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브라질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학교에 다니는 한생들은 대부분이 교포 2세의 자녀들로서 브라질에서 태어나 브라질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입니다. 이들에게는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장차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고, 그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자신의 교육철학을 밝힌 공한옥 브라질한국학교 교장은 2012년 2월 학교에 부임한 이래 한국 교육과정과 브라질 교육과정의 장점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교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교육과정은 음악과 미술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육과정에서는 예체능 교육 활성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전교생이 태권도 교육을 주 2회 받고 있으며, 점심시간을 활용해 단체줄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협동하며 너무 즐거워합니다. 음악실에서 우렁찬 노랫소리가 들릴 때면 덩달아 신이 납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한글로 노래를 부르며 흥얼흥얼 하는걸 볼 때면 정말 행복합니다.” 오수진(초등학교 5학년 담임) 교사의 말이다.

또한 이 학교에서는 매주 2회 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01.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의 예수상. 1931년 브라질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예수상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등재될 정도로 문화유산으로서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02. 브라질한국학교 전경

03. 넓은 공간에 다양한 장서를 구비한 현대화된 도서관 시설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의 80% 이상이 의류 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 파울루 패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한 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 매주 컴퓨터 디 자인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 기술을 익 히고 작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부모님들의 직업을 직접 체 험해 보고 장차 브라질 사회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맛있게 예의바르게 먹는 밥상머리 교육

브라질한국학교의 특별한 교육활동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밥상머리 교육’이다. “밥상머리에서의 제대



로 된 가르침은 아이의 인성 계발에 기초가 됨은 물론, 나 아가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 린 때부터의 올바른 예절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 고 ‘밥상머리 교육’의 취지를 설명한 공 교장은 브라질한국 학교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은 학교에서 시작하여 가정으로 확산된다고 강조한다.

먼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각 학년 반별로 바른 자세로 식사하기, 수저 바르게 사용하기, 음식에 대한 고마움 알기 등의 식사 예절부터, 올바른 식생활 습관 배우기, 유해식품 알기 등의 건강교육,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바르게 처리하 기, 분리수거 운동 실천 등 환경교육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교육하고 점심시간에는 사제동행으로 식사 지 도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생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대 표가 매월 평가하여 우수 반을 시상한다. 이와 함께 연말에 밥상머리 교육 우수 가정 사례 발표회도 개최하여 밥상머리 교육이 가정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꿈을 가꾸고 끼를 일깨우는 진로교육

브라질한국학교에서는 또한 동포 2,3세 학생들이 자신 의 정체성을 찾고 조국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 4교시에 학교장이 직접 강사가 되어 ‘꿈을 가



꾸고 끼를 일깨우는 멋진 세상 속으로’라는 진로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공 교장은 매주 한 시간씩 학생들과 만나며 자신이 직접 준비한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국제 사회 속에 서 대한민국의 위상, 자랑스러운 한국인 등을 소개하며 학 생들이 건전한 자아정체성을 함양하고 이민자로서 조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문화에 적합한 가치와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많은 부모님이 의 류 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프랑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디자이너를 소개하여 학생 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꿈을 잃지 않기 위한 동포들의 노력은 계속된다

2013년은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 은 해이다. 상파울루 곳곳에서 한국 문화 공연과 50주년 기념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5만여 명의 한인 교 포들이 브라질 땅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데에는 브라질한국학교의 역할도 한 몫을 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브라질한국학교의 앞 날은 그리 밝지 않다. 가장 큰 해결 과제는 2004년부터 누적되어온 체납세금이 30억 원에 이르고 있어 브라질 정

- 04. 태권도 발표회에서 1년 동안 익힌 태권도 실력을 뽐내는 학생들
- 05. 디자인 교육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 06. 식사 예절은 인성교육의 출발이다. 밥상머리 교육 우수 학급을 시상하며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공한옥 교장
- 07. 소방서를 방문하여 체험하고 있는 학생들. 소방차를 직접 탑승하며 신나는 한때를 보내고 있다.

부에 학교 건물이 압류될 위기에 놓여 있다. 30억 원의 빚 때문에 200억 원에 달하는 학교 건물이 압류되어 헐값에 공매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브 이민 50년을 기념 하는 행사를 거행하여 뜻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브라질한국학교를 살리기를 위한 노 력도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정체성 교 육은 물론 장차 브라질 사회에 뿌리를 내릴 2세들의 교육 과 한국과 브라질과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 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그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브라질한국학교가 브라질동포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 고, 자녀를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품격 있는 교육기관으 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 다.”라고 남은 임기동안의 자신의 포부를 밝힌 공 교장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학력을 철저히 관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브라질 교육과정과 한국 교육과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융합교육과정의 개발과 특히, 이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이중 언어(한국어, 포 르투갈어) 습득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을 학교 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학교가 정상화되기 위 해서는 우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많은 학생이 브 라질한국학교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브라질한국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교포들의 꿈이 깨지 고 희망을 잃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동포들은 학교를 살리 기 위한 성금 모금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나 체납액을 갚기 란 역부족인 실정이다. 학교와 동포사회의 자생적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장차 남미 시장에서 브라질이 차지 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자원이 풍부한 교역대상 국가로서 의 브라질에 대한 외교 차원에서 브라질한국학교의 회생 을 위한 교육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고

교장실 절반으로 줄여 소통공간 마련 부장교사 기획안만 보지 않고 교사들과 직접 대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 말은 2007년에 방한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박사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지적인 말이다. 아직도 머릿속에 또렷이 각인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 학교 현실을 이렇게 간결하게 함축한 문장은 보지 못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3월부터 근무하게 된 송현여고는 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진 이전 근무학교와는 사뭇 달랐다. 공동화가 진행되는 쇠락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개교한 지 30년이 되어 낡고 우중충한 느낌이었다. 학생 식당이 없어서 교실에서 배식이 이뤄졌다. 그 속에서 만난 학생들은 뚜렷한 소신 없이 배정되어 의욕이 없는 상태였고, 교사들은 그러한 학생들과 학교 환경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도, 교사도, 지역주민도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기대가 적다는 것이었다. 일반계고에 필요한 특성화된 교육활동이 부족하고 교육과정이 기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장으로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고여 있는 물을 떠올리게 하는, 침체되어 있는 학교와 학생들이 생기를 띠도록 만드는 방법이라 판단했다.

창의적 체험활동 통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부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여유 공간이 따로 없으니 교장실을 반으로 줄였다. 절반의 교장실인 만큼 소파, 냉장고 등은 물론이고 명패조차 없다. 회의용 탁자, 교직원과 함께 의논하는 업무용 책상, 시험지보관용 사물함만 놓았지만 그래서 더 효율적인 공간이 되었다. 나머지 반의 공간은 수업행동분석실로 만들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자유롭게 회의와 연수, 소그룹 수업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반쪽짜리 교장실과 수업행동분석실에서 많은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학생의 가치와 핵심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교’를 만들자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찾아내는 힘’을 기르는 부분에 학교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교수학습활동의 틀을 개선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열개를 짜는 것이 시급했다. 마침



01

여유 공간이 따로 없으니 교장실을 반으로 줄였다. 절반의 교장실인 만큼 소파, 냉장고 등은 물론이고 명패조차 없다. 회의용 탁자, 교직원과 함께 의논하는 업무용 책상, 시험지보관용 사물함만 놓았지만 그래서 더 효율적인 공간이 되었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창체 시간을 활용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설계·적용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 완성형 보고서 작성 경진대회인 주제탐구 발표대회와 1인 1과제 연구발표대회, 대학과 연계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R&E프로그램 등을 지역 최초로 시작하였다. 통합 논술과 토론 교육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베이트와 글쓰기, 책쓰기 교육과 함께 각종 체험활동을 융합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교과심화학습동아리 활동과 학급 단위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진학영역에서도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진로교육 및 상시 진학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 스스로 진로에 기반한 진학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공 학문과의 만남,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대학별 전형 대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연중 쉴 틈 없이 진행 중이다.

프로그램의 변화는 학생들의 변화로 이어졌다. 학년 초 교과 심화학습 동아리 신청을 받는데, 매년 신청자가 늘어 올해는 120개가 넘는 동아리가 구성되어 교사들을 놀라게 했다. 방과후 및 야간 자기주도학습 시간으로 부족해 심야시간과 토요일에도 학교 공간 구석구석은 물론, 교장실까지 개방하여 맞춤형 프로젝트 협동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적용되는 중에 있으므로 결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도 많다. 2013학년도 대학 수시

입학 전형에서 지역 국립대 합격률이 전년 대비 200%이상 늘었고,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 등에 학업 성적보다 상향 지원한 많은 학생들이 교육활동의 성과를 근거로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올해는 국회방송에서 주관한 고교 토론왕 서바이벌 대회에서 전국의 우수한 고교 학생들과 겨루어 3위의 성



02

01. 송현여고 김영보 교장

02. 교과 심화학습 동아리를 희망하는 학생이 점차 늘어나 올해에는 120개가 넘는 동아리를 구성했다.

적을 거두기도 했다. 특히 3,4위전에서 하나고등학교를 이기면서, 대회 진행자들에게 성실함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팀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예체능 분야 프로그램들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내의 삭막한 환경에 생기를 불어 넣고자 시작한 벽화그리기 동아리 활동은 학교 안팎의 벽면에 예술작품을 남기는 것을 넘어 지역의 어려운 동네에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으로 이어졌으며, 전국 평화기원 벽화그리기대회에서 고등부 1등을 수상하는 등의 역량을 축적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살려 교육활동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고 그것을 꿈꾸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이다.



03



04

03. 지역의 어려운 동네에 벽화그리기 봉사를 하는 학생들
04. 송현여고는 통합 논술과 토론 교육에 축전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베이트와 글쓰기 등이 융합된 각종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선정되어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열심히 뛰고 있다.

길지 않은 시간인 만큼 강도 높게 진행된 변화의 흐름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항상 노력하고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변화,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학교의 노력과 교사들의 수고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 지역 사회의 인식과 눈길이 달라짐을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학교 구

성원들이 오랜 기간 젖어있던 패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어려운 과제라도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매일 새로운 교육활동을 구상한다.

최고의 교사가 최고의 교육을 만든다

학교경영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관리자가 상명하달 식으로 명령한다고 해도 일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처리할 뿐이다. 지난 3년 반을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많음을 깨닫게 된다. 그 중 하나는 우리 학교에 최고 수준의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청과 학교의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교사들을 많이 만났고 함께 일하며 건강한 도전과 자극을 받는 즐거운 경험을 하였다. 지금 학교에서 함께 하는 교사들도 그런 경험과 도전을 받게 하는 이들이기에 행복감을 느낀다.

우리 학교에는 진로진학지도, 교육과정 운영, 평가문항 출제와 개발, 창의적 체험활동과 논술 및 토론교육, 교육정보화 및 스마트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각 영역에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이 있다. 학교장으로서 이들 교사들이 전문성을 더욱 신장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모든 교사가 교육활동에서 최소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힘쓰고 있다. 동시에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 중이다. 몇몇 부장 교사의 기획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들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제한된 물리적, 재정적 여건 속에서 차별화된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각종 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 개별 교사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업에 응모하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자기주도학습 중점학교 등 많은 사업에

교육 공동체의 행복 위한 학교 역량 집중

현 정부와 대구교육청의 정책 기조를 '행복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실 등교하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쉽지 않다. 나름대로의 소신으로 점심시간에 출장이나 급한 회의가 없으면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의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질서지도를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다. 밥 먹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고민과 즐거움이 드러나 있다. 삶이 힘들어 짜증을 내는 학생들을 보면서 학교의 역할은 다양한 학생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 주고 자신만의 역량을 길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선진국의 교육현장처럼 발달 단계별로 즐겁게 뛰어놀고 함께 공부하고 땀 흘리면서 공동체 정신과 함께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배우게 되는 당연한 원리가 우리 학교 현장에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가정에서 충분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처진 어깨를 보면서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송현여고의 교육활동은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만들기 위해 진화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를 위해 학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노력할 것이다. ②



01

학교폭력 치유기관 '해맑음센터'

상처 씻고 자존감 키운다

‘해맑음센터’(이하 센터)는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학부모를 위한 치유기관으로, 지난 7월 11일 대전에 문을 열었다. 대전시교육청과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 운영되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단순 보호를 넘어서 상처를 조기에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해맑음센터’는 해맑은 미소처럼 숨겨진 자신감을 회복하는 단계를 거쳐 자신만의 미래의 꿈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전 유성구 대동에 있는 옛 대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센터는 주변이 녹지구역으로 돼 있어 힐링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규모는 1만2,503m² 면적에 건물면적은 1,196m²이다. 교육부에서 폐교 리모델링 비용과 교사 인건비 등 10억 원을 지원했다.

석박사급 전문가 상주… 숙식비 전액 무료

센터는 기숙형 종합지원센터로 운영되며 전국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1순위로 입소할 수 있으며, 치유가 필요한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학생과 예방차원의 교육희망 학생도 입소가 가능하다. 초·중·고교생 남녀 15명씩 총30명 정원이며, 숙식비를 비롯한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현재 센터에는 심리상담, 임상심리, 사회복지, 청소년지도 등의 자격을 갖춘 석박사급 전문가 17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집단, 개별상담을 비롯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술·연극·춤·음악치료 등 전문 강사를 두고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편, 센터 안에는 학생들의 심리교육, 스트레스 관리, 학부모 교육 등을 위한 교육실 3곳과 각종 예술치료가 이뤄지는 집단프로그램실 2곳, 개인상담실 3곳을 비롯해 식당, 강당, 기숙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 01. 해맑음센터 개소식 모습
- 02.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해맑음센터의 전경
- 03. 전원 기숙사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식당
- 04. 입소식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

02

불안요소 낮추고 사회기술력 향상시키다

해맑음센터의 교육과정은 크게 바른 인성함양과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 교육과정과 공동체 교육활동, 치유활동으로 구분된다. 공동체 교육활동은 단체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해맞이 모임(체조, 청소, 빨래 등), 공동체 생활규칙, 공동과제수행, 집단응집력 및 정서적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치유 활동으로는 입소초기 학생들이 느끼는 우울감, 분노, 외상스트레스 등 불안요소를 낮추는데 주력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환기시키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견딜 수 있도록 학교적응력과 사회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고 있다. 심리적 유연성과 행동수정을 위한 심리평가 및 해석상담, 개인상담 등이 이뤄지며, 미술·연극·춤·음악·체육활동 등을 통해 예술치료를 진행한다. 특히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 부정적 정서환기, 정서조절능력, 자기주장훈련,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기술, 사회기술훈련 등의 집중 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해맑음센터가 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점은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개별, 집단상담한 후 행동변화까지 관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맑음센터는 입소생 전체가 숙식을 함께하며 단체생활을 함에 따라서 상담교사와 학생들 간의 밀착이 이뤄져 상담이 순조롭고, 상담 후 친구관계 즉 또래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범 상담교사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모니터하듯이 관찰이 가능해 상담 후 어떤 변화과정을 경험하고 있는지, 상담교사와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체크하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상담하고, 치유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 학교적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생활 속에서 학생들의 갈등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것을 센터에서는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이 학생들이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또래관계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지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갈등에서 드러나는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상담하여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해맑음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2주 단위로 운영되며, 희망할 경우 2주 단위로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현재 입소생 가운데 절반 정도는 연장 신청을 통해 이곳에서 심리상담과 예술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해맑음센터는 피해학생 가족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전화 070-7119-4119).



03



04

바람과 시간이 빚은 모래 언덕

신두리 사구

바람 따라 허공을 헤매던 모래알이 신두리 해안가에 앉았다.
한 알 한 알 그 모래알이 세월을 건너 언덕이 되었다.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에 발을 담그고 서면
시간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하다.
모래가 모여 언덕을 이루니 당신의 찰나가 쌓이면 무엇이 되느냐고.

태안은 서, 남, 북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안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해안선의 길이가 무려 530.8km이고 120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늘어져 있어 가는 곳마다 절경이다.

신두리 해안사구로 가기 전에 태안 마애삼존불과 옥파 이중일 생가를 둘러보는 것도 좋다. 태안 마애삼존불은 태안의 명산으로 불리는 백화산 중턱에 안겨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태안 시내와 서해의 리아스식 해안이 한눈에 들어온다.

백화산 중턱서 서해의 리아스식 해안 한눈에

마애삼존불은 태을암의 동쪽 약 50m 지점에 있는 거대한 암벽에 조각된 3불상을 말한다. 보살입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여래입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 크기와 배치 때문에 더욱 특별함을 지닌다. 삼존 배치는 대개 중앙에 본존불을 배치하고 좌우에 협시보살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달리 태안 마애삼존불은 중앙에 보살을, 좌우에 불상을 배치한 점이 독특하다. 더욱이 좌우의 불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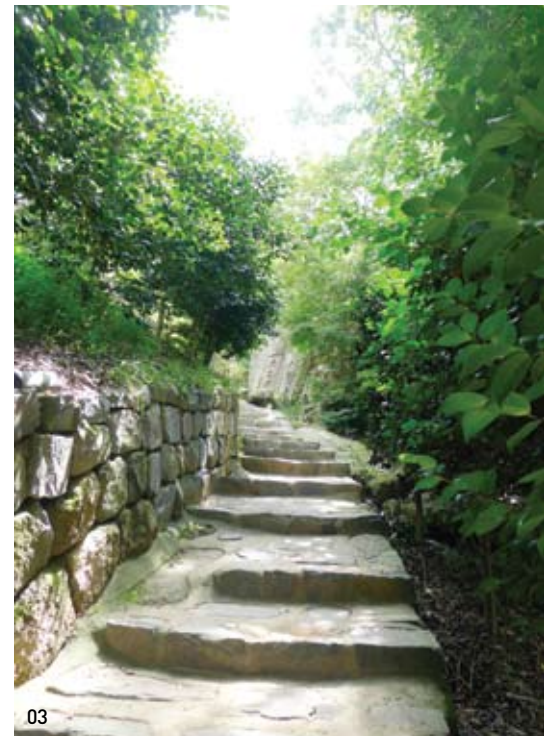
크고 중앙의 보살은 상대적으로 작은 점도 눈길을 끈다.

높이 394m, 폭 545m의 감실(龕室) 모양의 암벽에 새겨진 마애삼존불은 백제시대 만들어졌다고 한다. 불의(佛衣)의 표현이 두껍고 힘차며 두 팔에 걸친 옷자락도 묵직하게 흘러내린다. 부처의 위엄을 돋보이게 한 것이라 한다. 양식상으로는 중국 북제(北齊) 불상양식의 계통을 따르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당시 삼국시대 중국과의 교역에서 다리 역할을 했던 태안반도에 위치한다는 점 등을 들어 중국의 새로운 석굴사원 양식을 수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태안 마애삼존불은 1966년 2월 28일 보물 제432호로 지정·관리되어 오다 2004년 8월 31일 국보 제307호로 지정됐다. 인적 드문 깊은 산중에서 무수히 땀을 쏟으며 돌 벽에 불상을 새겼을 이름 모를 이의 손길이 새삼 애잔하다. 그는 어떠한 염원을 품었을까. 얼마나 간절한 것이기에 백제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낯선 이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가.

01.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된 신두리 사구

02. 삼존불은 대개 중앙에 불상을 배치하고 좌우에 보살을 배치하는데, 이와 달리 태안 마애삼존불은 중앙에 보살을, 좌우에 불상을 배치한 점이 독특하다.

03. 태을암에서 마애삼존불로 올라가는 길





3·1운동의 주역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터

백화산 중턱까지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발길을 돌려 신두리로 향하다 보면 옥파 이종일 선생의 생가가 나타난다.

옥파 이종일 선생은 1919년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학교장을 지내고 『대한황성신문』을 발행하는 등 교육자이자 언론인으로 산 독립운동가이다.

정갈하게 조성해 놓은 이종일 선생 생가터에는 생가와 사당, 기념관 등이 갖춰져 있다. 생가는 1986년 선생의 생가터에 복원한 것인데, 6칸 겹집의 ‘ㄴ’자형으로 앉은 동향 초가집이다. 이곳은 2003년 2월 18일 국가지정 현충시설물로 지정되었다.

이종일 선생 사당에는 선생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어 매년 추모제향을 지낸다. 한식 건물로 지어진 기념관에는 옥파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느낄 수 있는 묵암비망록과 옥파전집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다. 도포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이종일 선생 동상이 의연하면서도 한편으론 외로워 보인다. 그의 곧은 시선이 닿는 곳은 푸른 하늘이다. 금방이라도 만세합성이 터져 나올 듯하다. 이종일 선생이 창공을 향해 쏘았던 독립만세합성은 축복이 되어 우리 머리 위로 지금 내려앉고 있다.



해안을 보호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벽

옥파 이종일 선생의 생가지를 원편으로 돌아 10여 분 더 달리면 신두리 해수욕장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곳은 탁 트인 백사장과 함께 깊고 푸른 바닷물이 태평양의 바닷가를 연상케 한다. 신두리 사구는 동양최고의 사구로서 그 자연



적 가치 때문에 TV 등에서도 여러 번 방영된 적이 있다.

신두리 사구는 모래가 바람을 타고 육지에 모래언덕을 쌓은 것으로 2001년 11월 30일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막’과 같은 경관을 감상하는 것도 이색적인 경험일 것이다. 규모는 해변을 따라 길이 약 3.4km, 너비 500m~1.3km로, 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된 북쪽 지역 일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신두리 해안의 만입부(바다가 육지 속으로 파고들어와 있는 곳)에 있는 모래사장(사빈(砂濱))의 배후를 따라 펼쳐져 있는데, 이곳은 겨울철에 강한 북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간조 때가 되면 넓은 모래 개펄과 해변이 그대로 드러난다. 개펄과 해변에 있던 모래가 바람을 타고 육지로 건너와 사구(모래언덕)가 형성되기에 좋은 조건을 지닌 것이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결이 그림을 그리는데 따끈한 모래 안에 발을 묻고 가만히 풍경을 바라보는 재미도 쏠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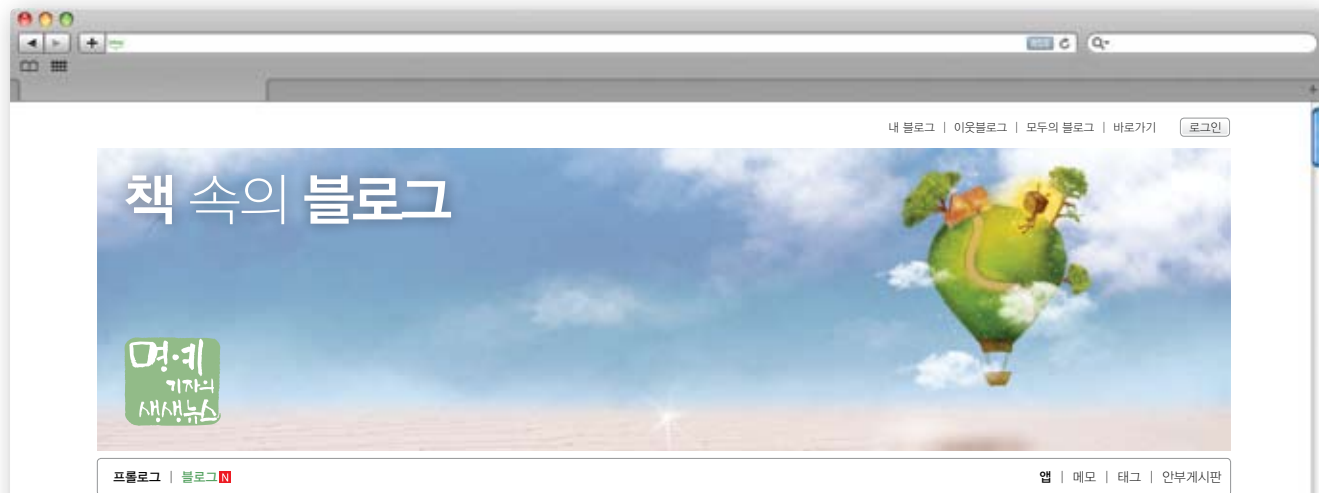
- 04. 마애삼존불이 있는 백화산 중턱에서 내려다보면 태안시내는 물론, 서해바다의 수평선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 05.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교육자이자 언론인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옥파 이종일 선생 동상
- 06. 이종일 선생 생가
- 07. 이종일 선생 기념관
- 08. 신두리 사구 인근에 두웅습지와 여러 해수욕장이 있어 나들이하기에 좋다.

다. 아이들은 폭폭 빠지는 모래언덕에 힘겹게 올랐다가 주르르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맛을 즐기기도 한다.

신두리 사구와 같이 바닷가에 형성된 해안사구는 모래공급량과 풍속·풍향, 식물의 특성, 주변의 지형, 기후 등의 요인에 따라 크기가 결정된다. 해안사구는 육지와 바다 사이의 퇴적물의 양을 조절하여 해안을 보호하고,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완충적 역할을 하며, 폭풍·해일로부터 해안선과 농경지를 보호하기도 한다. 신두리 사구는 독특한 지형과 식생이 잘 보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당화 군락, 조류의 산란장소 등으로도 가치가 높다.

다만, 중동지역의 거대한 모래사막을 상상하고 온 관광객이라면 ‘에게게~’하고 실망할지도 모른다. 모래에 작은 나뭇가지 등 이물질이 많이 섞여있고 군데군데 풀 등이 돌아있어 ‘드라마틱’한 사막의 느낌은 없을 수 있다. 바람과 시간이 빚어놓은 모래언덕의 가치는 아는 만큼 보고, 보이는 만큼 느끼면 된다. ㉠





☛ 융합형 인재의 첫 걸음 '창의적 SW교육'

세계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도구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서 프로그래밍을 초·중학교 정규 교과에 포함하는 등 어린 시절부터 SW개발 교육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어릴 때부터 보다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SW교육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개방형 SW교육센터(<http://olc.oss.kr>)'에 스크래치 등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과정을 8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스크래치(SCRATCH)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적 사고력과 창의적 증진을 위해 MIT에서 개발한 어려운 명령어를 몰라도 레고블록을 쌓듯이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번 온라인 SW교육 강좌 개설에 맞추어 주니어 SW 경진대회 참가자와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주니어 SW 온라인 교육 발대식」 행사를 8월 12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하였다. 행사에 참가한 인천화전초교 5학년 김하준 학생은 자신이 개발한 작품을 직접 시연하면서 “앵그리 성호가 날아가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학습적으로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각도를 어렵잡아서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봤어요.”라고 발표하여 프로그래밍 교육이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력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높음을 시사했다.

이어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프로그래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발대식에 참석한 초·중등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밍 교육에도 학생들이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이며 스크래치 학습에 임했다. 개방형 SW교육센터의 스크래치 온라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환 박사는 “스크래치는 도구일 뿐 본질은 사고력 교육이다. 우리는 스크래치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구현해서 디지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중요시하며, 이 가운데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에 입문과정 중심으로 개설된 온라인 SW교육 내용을 심화과정 콘텐츠 추가, 학습자 지원을 위한 SW개발자 멘토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SW 창의캠프'를 개최하는 등 SW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①

글·사진_ 서희정 명예기자(인천심곡초등학교 교사)



이런 선거 어때요?

학급 선관위 구성해 참여 열기 후끈



반장 선거 개표하는 순간

반장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뜬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열린 우리 반의 반장 선거를 소개한다.

반장 선거 날은 2주일 전에 공지되며, 선거 일주일 전 입후보 신청을 받는다. 입후보 신청이 이루어진 후에는 교실 뒤에 이름, 경력, 공약 등의 후보자 소개에 관한 벽보를 붙인다. 벽보를 붙이고 난 후에는 학교 선거 규칙에 따라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데, 반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이때부터 두드러진다. 공정하고 신뢰 높은 정당당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혹시라도 후보자들의 비방선거,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한다. 선거 후보자들은 우리 반을 위해서 2학기에 실현하고 싶은 공약을 내세워 연설회, 메신저, 블로그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실시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무리한 홍보 등은 철저히 제한된다. 선거 운동은 선거 전날까지 이루어지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종료를 알린다.

학생들은 나중에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할 때, 지금 선거처럼 한 표의 소중함을 느끼고 기억할 것이다.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감을 부여한다면 더욱더 공명정대(公明正大)한 학급이 이뤄지지 않을까. ②

글·사진_ 양지훈 명예기자(안산공업고등학교 교사)

학교폭력 예방, 명예경찰소년단

요즘 여기저기서 학교폭력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명예경찰소년단이 있어 서천 장항초등학교는 든든하기만 하다. 장항초등학교는 4월부터 명예경찰소년단 학생들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22명의 명예경찰 학생들은 서천경찰서에서 명예경찰소년단 활동요령, 범죄 예방교육, 경찰체험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후 명예경찰 위촉장을 수여 받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명예경찰소년단은 4명씩 한 팀이 되어 교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일주일에 교대로 교내 순시를 하며 선도위주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주위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주요 활동시간은 아침활동시간(8:00~8:50)과 점심시간(12:10~13:10)이며 학생들의 아침활동시간 참여 유도 및 안전을 위한 교내 활동과 점심시간에 정정공원 내 위험지역, 자전거 주차장과 주변 철조망 부근 선도활동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와 자연보호 운동에 힘쓰고 있다. 또 방과 후 및 쉬는 시간에 에너지 순찰대로서 빈 교실의 실내등과 전열기구 상태 확인을 통한 에너지 절약 운동의 활동을 한다.

명예경찰소년단은 학교와 친구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학교 질서 확립과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5학년 명예경찰 임하람 학생은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경찰 아저씨들처럼 저희도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돕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③

글_ 이규배 명예기자(장항초등학교 교사)

※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의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암웨이 미술관을 찾아서 · 제29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을 다녀와서(김복배) / 신나는 예술캠프로 시원한 여름방학을(심우영) / 우리 땅 순례 '합천군 울곡면~초계면~쌍책면'(심재근) / 말하기의 중요성(양지훈) / 새만금자평선전국마라톤 대회 · 김제자평선축제 · 재외동포 학생과 일촌 맺기(이원범)

•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 → 독자의 소리 → 명예기자 현장리포트



NEWS BRIEFING

092013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을 위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최근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08~’12)」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 학생, 학부모, 장애인단체,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관련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고, 특히, 지난 7월 18일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특수교육 관계자 등 250여 명이 함께하는 「장애학생 행복교육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 후 최종 의견을 담아 완성하였다. 이번 제4차 계획은 제도의 현장 착근을 토대로 보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계획은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11개 중점 과제,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교육성가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교과서 및 지도서 60종, 보완자료 40종이 개발·보급되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거점지원센터를 각 7개, 12개를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수학 및 점자 등 특수교육 관련 자격소지자에 대한 임용 시 가산점을 부여 등 장애유형별 교수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특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등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과밀 특수학급과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특수학교(급)을 연차적으로 신·증설하고, 부족한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셋째,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전국 190여 개 상설모니터단(위원 1,500여 명)의 상시모니터링 및 예방교육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을 최소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장애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고, 거주지에서 쉽게 접근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및 폴리텍대학에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장애학생 취업률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역사교육 강화 방안(안)」 발표 교육부는 최근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역사교육 강화 방안(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학생들의 역사인식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춘 인재가 길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금번 방안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체험 중심 역사교육 강화, △교원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 △역사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학습지원 확대 및 역사왜곡 대응 강화, △역사교육 지원 체제 구축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체험 중심 역사교육 강화 우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수업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지식 전달 중심의 역사 수업을 협력 학습이나 체험형 수업 등 학생 중심 참여 수업으로 전환하고, 체험을 통한 의미 있는 교수·학습 과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학생 역사	동아리 활동, 역사 인물 역할극, 역사 스토리텔링 공연방송의 영상자료를 활용 등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교원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 역사담당 교사의 교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역사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역사수업 개선 연수를 확대하여 흥미로운 역사수업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교직생애단계별 연수도입과 연계하여 ‘역사교사 직무연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교원 및 학교관리자의 역사 인식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역사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우선 현행 5단위인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 시수를 확대하여 6단위로 하고, 2개 학기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사’를 사회교과(군)에서 분리하여 편성·운영함으로써 안정적 역사교육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대입에 연계하되, 그 방식은 지금까지 제시된 대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달 발표 예정인 대입전형간소화 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역사교육 분야 학술 지원 강화 동북아 역사문제 등 새롭게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비롯하여 고전번역 및 조선사(조선사편수회 발간) 번역·해제 등을 집중 지원하고, 교양서 발간, 석학 강좌 등을 통해 연구 성과 확산 및 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독도, 일본군 위안부 등 영토·역사 및 교과서 왜곡 관련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해외 역사교사 및 역사학자 초청 등 해외홍보 및 교류도 강화할 계획이다.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교육부에 차관 직속으로 ‘역사교육강화추진단(가칭)’을 구성하여 역사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 및 평가방법, 역사 담당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역사교육 강화 방안(안)」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사립학교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목적 없이 적립하고 있는 기타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였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특정적립금’은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적립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적립하도록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이 적립금의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적립금 적립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만 가능하도록 용도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적립금은 전체 적립금 중 29%(2011회계연도 누적적립금 기준)에 달하지만 적립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방지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재정 건전성 도모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3.8.21~’10.4)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방안 발표 교육부는 최근 ‘14학년도 디지털교과서 시범 적용을 위한 ’13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방안을 발표하였다. ’14학년도 중학교 1학년(또는 2학년)과 초등학교 3~4학년의 ‘사회’, ‘과학’ 교과에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14학년도 시범적용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연구학교 운영, 교원 연수 및 수업모델 개발, 그리고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지원체제도 구축한다. 연구학교에서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을 통해 다양한 수업모델을 개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무선 인터넷망 확충과 스마트기기(학교별 평균 90대, 공동비치형태) 등을 보급한다.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프로그램 제공, ‘찾아가는 연수’ 및 ‘교원별 맞춤형 연수’ 등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교과별 연구회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교과서와 기기 활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 진단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는 등 사전에 건전한 이용환경도 조성한다. 아울러, 학교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및 단어에 대한 설명과 멀티미디어 자원이 결합된 디지털 교수학습자료도 확충한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스마트교육)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토론회, 모니터링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5년 이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방안’을 내년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며, 서책형교과서와 연계하여 디지털교과서와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교실수업에서는 학생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고,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14학년도 대학수능 응시원서 접수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7일(목)에 실시되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8월 22일(목)부터 오는 6일(금)까지 12일간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고, 이외 기타 불가피	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한의 연장은 절대로 불가하므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와 EBS는 ‘14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BS진학상담실’에서 무료로 ‘수시모집 온라인 집중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모집 온라인 집중 상담’은 수시모집 1차 원서접수기간(9월4일~13일)을 앞두고 수시 지원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오는 9월 13일(금)까지 진행된다. EBS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08년부터 ‘1:1 온라인 입시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수험생들의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상담뿐 아니라 내신과 수능전략에 이르기까지 학습전반에 대한 상담을 연중 진행해 왔다. EBS측은 “비공개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맞춤형 일대일 상담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EBS 진학상담실’의 ‘진학상담위원단’은 수험생의 질문이 게시판에 올라오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주며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진학상담위원단’은 수험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과 전략을 설명해주고, 학교생활기록부와 모의평가 성적 등을 기반으로 희망대학 및 학과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수험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상담이 가능하며, 공개 상담이라해도 상담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된다. 온라인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은 ‘EBS 수능’ 홈페이지(www.ebsi.co.kr)에서 ‘2014 수시대비 EBS진학상담실’ 배너를 클릭하거나, ‘입시정보’ 카테고리 내에서 ‘EBS 진학상담실’을 클릭하면 된다. 
---	--	--	---	---	---



학생들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보 담길

손지현(서울 구로구 구로동)



1. '행복한 교육'을 읽게 되신 동기는 무엇인가요?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직장동료의 권유로 읽게 되었다. 교육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읽으면서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 선후배와 함께 공유하고 나눴던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돌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2. 지난 8월호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신 코너는 무엇인가요?

'직업, 직업인' 성우 강수진 씨를 인터뷰한 기사가 좋았다.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어, 멀게만 느껴졌던 '성우'라는 직업이 쉽게 다가왔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직업, 꿈, 장래희망 등에 대해 외부의 시선이 아닌 자기 내면의 시선으로 고민하여 결정짓는데 도움이 될 듯 싶다.

3. 아쉬움이 남거나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은?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기사와 정보 혹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분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진로나침반은 정보성격을 더 강화해서 학교에서 자료를 따로 가공하지 않고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실었으면 한다.

4. 앞으로 담았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고민들을 이 책에서 찾아 읽을 수 있었으면 한다. 아직 자녀가 없지만, 예비부모로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 경제력, 정보력이 아닌 자녀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담아주었으면 한다.

학교체육과 관련한 기사를 유익하게 읽었다. 여학생들이 체육에 흥미를 못 느끼는 이유가 옷갈아입기 귀찮아서, 땀흘리기 싫어서, 남학생들 시선을 의식해서라는 설문조사결과를 보았다. 내가 학교다닐 때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 공감이 되었다. 화장실은 체육복을 갈아입으려는 여학생들로 붐비고, 교실에서 체육복 갈아입기 번거워서 교복 위에 체육복을 겹쳐 입고 나가곤 하였는데 탈의실을 설치한다는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

최현정 | 행복한 교육 모니터단

스토리텔링 수학을 다룬 김태완 선생님의 기사가 잘 읽혔다. 수학교육을 전공한 교사로 평소 스토리텔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학생들에게 흥미유발을 위해 수업 중 수학사를 말해주기도 하는데, 수학에 관심없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런 스토리텔링 수업을 하면 학생들에게 수학이 친근한 과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유아람 | 행복한 교육 모니터단

대안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평소 사립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왔지만 공교육 안에서 이뤄지는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마산에 있는 태봉고의 교육 활동을 보면서 공교육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아 신선했다. 주변에서는 흔히 문제아로 불리지만 이 아이들을 힘든 아이들로 이해하고 끌어안으려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담쟁이 정신으로 '한 뼉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장혜진 | 행복한 교육 모니터단

오자만담

올바른 가정교육은 ○○○○○해야 한다.

학생들의 기본품성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바른 가정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치를 담아 다섯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보내실 때는 이름, 연락처, 주소(우편번호)를 꼭 기입해 매달 20일까지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eduzine21@gmail.com
(gmail은 수신확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난호 오자만담 당첨자 8월호 주제 :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한다.

또다시화팅(김민선) / 미래를설계(권기훈) / 초심돌리기(조일국) / 성공한상상(박정하) / 내일을생각(이경자)



신뢰로 풀어나가는 남북관계, 신뢰로 하나되는 한반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약속입니다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 남북간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를 쌓겠습니다.
-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겠습니다.
-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기초로 하겠습니다.



꿈을 키우고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 행복한 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국·영·수 위주의 암기식 수업은 NO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학생 중심 수업과
스스로 탐구하고 함께 학습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 UP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잠재력을 키우는 예·체능 교육,
희망을 반영한 선택 프로그램에
마음껏 참여하여 꿈과 끼를 키워보자

토론하고 소통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방식으로! **01**

02 관심과 흥미에 따라
마음껏 참여하자



소질과 적성을 알면
진로가 보인다! **03**

다양한 진로 활동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사회 체험 활동을 통해
공동체와 직업세계를 이해해보자

04 공부하는 동기를 찾고,
함께 성장하자!

시험을 위한 공부에서 벗어나
학습동기를 찾아 스스로 학업에 매진하고
경쟁과 성취 중심에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자!